





영혼의 고양

# 정하이 무상사 새로 나온 DVD



560 <영어 + 중국어 자막>

## 모든 영혼이 스승이다

1996. 7. 22. 캄보디아 레이징 센터 단체명상

모든 영혼이 이 세상에 온 사명과 목적은 무엇인가? 영혼은 자신의 길을 어떻게 선택하는가? 왜 어떤 영혼은 자유롭고 편안하게 살아가는 데 비해 다른 영혼들은 고통과 무수한 고난을 겪기로 선택하는가? 이 세상에 온 후 영혼이 천국에서의 자신의 영광을 잊기 쉬운 깨달은 무엇인가? 신의 왕국으로 돌아가고 싶어하지 않는 영혼들에 대해선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DVD를 통해 스승님의 명쾌한 설명을 들어 보시길.



742 <중국어 + 자막 없음>

## 수행의 힘으로 세계를 고양시키자

2002. 8. 4. 포모사 시후/ 8. 11. 홍콩/ 9. 15. 중국 동수들과의 화상회의

이 DVD에 담긴 세 편의 사제간의 화상회의에서 동수들은 수행에 대한 많은 질문들을 문의했다. 명상하는 동안 계속되는 잡념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거짓 스승들이 판을 치는 시대에서 어떻게 도심(道心)을 보호해야 하는가? 수행과 센터 일을 자연스럽게 병행할 수 있는 방법은? 동수들의 각 질문에 대해 한없는 인내심으로 답변하신 스승님의 말씀은 모두에게 귀중한 참고가 될 것이다.



512 <중국어 + 23개 국어 자막>

## 속세에서 수행하는 법

1995. 11. 5. 포모사 시후 단체명상

스승님은 이 DVD에서 고대 중국의 대정치가였던 관중의 이야기를 통해 주옥같은 많은 가르침을 전하셨다. 전국시대 제나라의 재상이었던 관중은 백성과 나라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명예와 사적인 이익을 내던진 채 매우 요령 있게 국사를 풀어 나갔다. 그는 정치적 소용돌이에 빠져 있으면서도 청정한 정신을 유지해 국가를 잘 통치할 수 있었다.

716 <영어 + 23개 국어 자막>

## 신을 자연스럽게 사랑하는 법

2001. 6. 8. 미국 플로리다 센터 단체명상

일부 동수들은 입문하고 나서 수행에 진보가 없다는 느낌을 갖는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이를 해결할 방법은? 특정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명상할 때 집중하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 어떻게 이 문제를 극복해야 하는가? 이 DVD에는 위 질문들 외에도 스승님의 자애로운 일깨움이 가득 담겨 있어 주의 깊게 감상하다 보면 자신의 성인(聖人)으로서의 지위를 기억하고 항상 성인처럼 고귀하고 장엄하며 성스럽게 행동하도록 스스로를 일깨우게 된다.



705

<영어 + 한국어통역 + 25개 국어 자막>

## 꿈에서 깨어나라

2000. 5. 17. 한국 서울 단체명상

스승님은 구도 생활을 하시기 전 많은 시들을 쓰셨다. 훗날 낭송하신 게 라디오로 방송된 후 청취자들의 열렬한 호응을 얻기도 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타난 데는 어떤 깊은 뜻이 있을까?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에서는 조상 숭배의 풍속을 유지하고 있다. 관음법문 수행자는 이 전통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관광 명상을 할 때 가장 핵심적인 요건은? 인간 복제에 대한 스승님의 견해는? 깨달은 스승이 열반했을 때 반 입문을 한 어린이는 계속 그 보살핌과 인도를 받을 수 있는가? 이 흥미진진한 주제들에 대한 답들이 이 DVD에 담겨 있다.





**앞표지 안/ 뒤표지**      **영혼의 고양**  
청하이 무상사 새로 나온 DVD/ 책/ CD/ 비디오테이프

**2**      **스승님 말씀**  
시비를 초월하고 내면에 집중해 큰 깨달음에 이르라

**4**      **다채로운 이벤트**  
호주/ 미국/ 콜롬비아/ 대한민국/ 태국/ 포모사

**9/ 14/ 29**      **지혜어록**  
수행을 잘해야만 세상을 도울 수 있다/  
놓아버리면 자재하다/ 다 함께 힘을 모으면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 수 있다

**9**      **행사 메모**

**10**      **제일선에서**  
신이 모든 것을 돌보신다-포모사 타오위안 도서전 종합 보도

**15**      **과학과 영성**  
과학적 관점에서 본 명상

**16**      **골라 뽑은 수행문답**  
영적 성장을 가늠하는 지표/ 자신의 내적 치료 에너지를 개발하라/ 거울의 왕

**20**      **감로벌어**  
이생에서 해탈하라

**21**      **관음 가족**  
당신의 사랑이 우리 모두의 가슴속을 울립니다/ 관음법문이 우리 가족을 고양시키다/ 놀라운 은총

**26**      **스승님이 말씀하시기를**  
선 행사 동안 전심으로 집중하고 세상을 놓아버려라

**30**      **수행의 길목에서**  
궁극의 법문

**31**      **이야기 세상**  
깨달은 스승의 자비로운 완전한 모범

**32**      **스승님이 해주신 이야기**  
농부와 뱀

**34**      **사랑의 실천**  
캐나다/ 인도/ 대한민국/ 홍콩/ 포모사

**37/ 46**      **감사 편지**  
캐나다/ 대한민국

**38/ 45**      **매체 보도**  
캐나다/ 대한민국

**50**      **관음 웹사이트**

**51**      **전세계 연락처**

**56**      **시**  
기쁨 선언

**뒤표지 안**      **스승님의 농담**  
의사의 현명한 투자/ 우편 배달부에게도 영능력이 필요해/ 안됐군요, 하느님!



명상을 많이 하면 모든 것을 열린 마음  
으로 보게 되고 정신 또한 이완됩니다.  
~ 청하이 무상사 ~

출판일자 : 2004. 3. 13.  
설립년도 : 1990. 4. 1.  
발행처 : 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발행인 : Lin Ping Xing  
인쇄처 : 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대한민국)  
TEL : (02) 577-2158/ (031) 772-9250  
www.godsdirectcontact.or.kr/ chinghai@unitel.co.kr

청하이 무상사 뉴스잡지는 한국어, 중국어, 영어, 어올락어, 스페인어, 불어, 독어, 태국어, 일본어, 인도네시아어, 포르투갈어 등  
전세계 각국 언어로 발행되고 있습니다.

**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뉴스잡지 146호**



## 시비를 초월하고 내면에 집중해 큰 깨달음에 이르라

청하이 무상사/ 1993. 6. 26. 홍콩 (원문 중국어)  
비디오테이프 No. 379

우리의 불성은 매우 위대하며 무한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매일 발전시키고  
인식해야 하며, 조금 깨달았다고 만족해선 안 됩니다. 그것만으로는 결코 충분하지 않습니다!

### 불성은 위대하며 무한하다

여러분은 더 많이 명상해야 합니다! 명상하지 않으면 일도 잘 못하고 심적으로도 불편해집니다. 명상을 많이 하면 모든 것을 열린 마음으로 보게 되고 정신 또한 이완됩니다. 그렇지요? (대중: 예!)

명상이란 가부좌하고 앉아 있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전심을 다해 내면에 집중해야 합니다. 신실하고 내면을 향해야 하며 세속의 일에 신경 쓰지 말아야 합니다. 24시간 동안 이럴 수 있으면 우리의 기운은 매우 편안해질 것입니다. 모든 것을 편안한 마음으로 보게 되며 오랫동안 마음이 답답한 일도 없을 것입니다.

깨달으면 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석가모니불의 경우 깨닫고 난 후에도 매일 명상을 계속해서 깨달음을 더욱 키워 나갔습니다. 불성은 그렇게 작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 겨우 별이나 달을 보았다고 기뻐하거나 매일 내면의 빛 또는 아미타불의 세계, 천국을 보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것을 매일 발전시키고 인식해야 하며, 조금 깨달았다고 만족해선 안 됩니다. 그것만으로는 결코 충분하지 않습니다!

### 시비를 초월해 높이 올라서라

어떤 수행자들은 수행도 부족하고 명상도 전혀 안 하면서 오히려 자신의 삶이 편치 않다고 불평을 합니다. 삶이 편치 않으면 더 많이 명상해야지요! 명상을 통해서만 우리 삶은 좀더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좋지 못한 자장에 둘러싸여 있는데 어떻게 편안해지겠습니까?

따라서 여러분은 그런 무의미하고 사소한 문제들에 신경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세상일은 적게 알수록 좋으니 너무 많이 관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런 것을 초월해 높이 올라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청정하게 수행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으며 명상해도 성과가 생겨 계속할 수 있는 동기를 얻게 됩니

다. 그렇지 않고 하루 종일 이러한 사소한 일에 신경 쓴다면 명상에 집중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명상할 때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잡념들이 계속 떠오른다면 어떻게 선정(禪定)에 들 수 있겠습니까?

가장 좋은 것은 높이 날아올라 이 세상의 모든 시비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항상 이것저것을 바꾸는 것은 여러분에게 이런 것을 배우라고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은 더 빨리 배워야 하며, 이러한 사소하고 쓸모도 없고 가치도 없는 일에 묶여서는 안 됩니다.

### 작은 가시에 걸리지 마라

우리가 화를 내거나 비판적인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 마음은 좁아져서 전부를 수용할 수 없게 됩니다. 나뭇가지의 작은 가시에 옷이 걸릴 때처럼 그 가시를 떼어 내지 않으면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 가시가 아무리 작다 해도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웃이나 스승에 신경 쓰지 말고 그 어떤 사람의 좋고 나쁨에도 관여치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전심으로 명상할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 어떤 쓰레기라도 있으면 거기에 막혀서 장애가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수행이 왜 이렇게 빨리 진보할 수 있었을까요? 내가 너무나도 변화무쌍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나를 ‘따라잡지’ 못해요. (스승님과 대중 웃음) 나에게 집착하거나 칭찬하거나 어떤 형상에 매일 틈을 주지 않으니까요. 여러분은 그저 나의 가르침을 따라 수행하기만 하면 이로움이 있고 진보할 겁니다. 그러면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겠지요. 내가 어떻게 하든 그것은 나 개인의 일일 뿐 여러분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을 돕는 것은 스승의 힘, 우주의 힘이지 나 개인이 돕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내가 하는 일에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웃과 동수의 시비에 대해서는 더더구나 관

여치 마세요. 물론 그들이 잘못했다고 생각되어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경우엔 한마디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듣지 않는다면 잊어버리세요. 마음속에 오랫동안 담아 두지 마십시오.

때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화가 나면 명상이 잘 안 되잖아요? (대중: 예.) 그를 잊어버리려고 애쓸수록 보기 싫은 그 사람 얼굴이 우리 앞에 아른거립니다. (대중 웃음) TV를 볼 때처럼요. TV는 꺼 버리면 그만이지만 그 사람의 얼굴은 계속 우리 지혜안 앞에 나타나니 정말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의 좋고 나쁜 점에 대해 신경 쓰지 마십시오. 큰 것은 작게 보고 작은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면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이해하도록 최선을 다하십시오. 용서하고 이해할수록 더 좋습니다. 그들에게 화내지 마세요. 오랫동안 화를 품고 있으면 우리 몸에 암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화가 몸에 가장 해롭다는 건 모두들 알 겁니다.

### 화를 푸는 것이 자신과 다른 이들에게 이롭다

너무나도 화가 나면 최대한 화를 줄이도록 노력하십시오. 조금 화가 났다면 가능한 한 화를 풀어서 나중엔 웃으며 잊어버리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여러분에게 좋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없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대단히 좋은 일입니다.

나도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음량을 줄이거나 키울 수 있듯이 화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달린 거지요. 화를 크게 내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는 해롭습니다. 화를 좀 덜 내도록 하면 나중에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되어 우리에게 좋고 모든 사람들에게도 좋습니다.



## 호주 소식

## 경축! 새 센터 개관



[마를란] 2003년 8월 29일 마를란 동수들은 친구들과 이웃들을 초대해 맛있는 채식 만찬을 즐기며 새롭게 단장한 넓고 아름다운 새 센터의 개관을 축하하는 멋진 행사를 치렀다. 개관식이 끝난 직후 숨씨 좋은 동수들은 이중 차고를 명상홀로 개조하고 물탱크가 딸린 임시 샤워실도 여덟 칸 만들었다. 아울러 명상홀, 출입구, 야영지, 주방, 욕실, 화장실 등 여러 지역에 전등을 설치해 불을 밝히자 새 센터에는 포근하고 손님을 반기는 분위기가 감돌았다.

시드니와 캔버라 동수들이 도와준 덕분에 센터 개관 기념 선이 행사가 9월 13일과 14일에 치러졌다. 선 행사 둘째 날에 열린 중추절 행사는 선이 행사를 멋지게 마무리하기 위해 계획되었다. 어른, 어린이 동수 모두 멋지고 행복한 분위기를 즐겼으며, 각자 선



물을 받고 재미있는 공연을 보며 만족감을 금치 못했다.

고요한 곳에서 열린  
즐거운 선 행사

[바이런베이 · 노던리버스] 바이런베이와 노던리버스 동수들은 2003년 8월 중순 센터에서 즐거운 선이 행사를 개최했다. 선 행사를 통해 동수들은 법회를 누리고 영성의 고양감을 느끼는 등 많은 수확을 거둘 수 있었다.







### 미국 펜실베이니아 소식



### 모두에게 이로운 홍법 활동

[해리스버그] 펜실베이니아의 주도(州都)인 해리스버그 동수들은 수년 동안 스승님의 가르침을 이 지역에 전하려는 생각을 가져 왔다. 마침내 2003년 8월 25일 그 염원이 이루어져 이 도시 최초의 비디오 강연회가 열리게 되었다.

행사에 앞서 버지니아와 뉴저지, 필라델피아, 캐나다 등지에서 많은 동수들이 찾아와 강연회 준비를 도와주었으며, 강연장엔 스승님의 축복으로 온화한 자장이 흘러넘쳤다. 비디오 강연회가 시작되자 스승님의 말씀에 완전히 빠져든 청중들은 간간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감을 표하거나 미소를 띠기도 했는데, 한 흑인 형제는 감동의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수년간 완전 채식을 해 온 한 폴란드인은 며칠 전에 신께서 자신에게 눈부신 천국의 빛을 보여 주셨다고 말했다. 그녀가 신께 정말 당신이 신이 맞다면 다시 한 번 그 빛을 보여 달라고 청하자 신은 두 번 더 빛을 보여 주셨다고 한다. 방편법을 배운 후 현재 입문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그녀는 세속의 의

무를 다하는 동시에 이제 매일 명상을 통해 스승님과 함께 천국으로 돌아갈 시간이 됐음을 알고 있다.

많은 참석자들이 방편법을 배웠으며 일부는 입문을 신청하기도 했다. 방편법을 배운 사람들은 명상의 즐거움을 한껏 누렸다. 아직 방편법을 배울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을 포함한 모든 참석자들이 이번 강연회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스승님의 아름다움과 훌륭한 강연에 감탄했다.

동수들은 많은 공부를 할 수 있었던 이번 해리스버그 강연회 활동에 기뻐했다. 또한 이번 행사를 통해 스승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활동을 여럿이 함께하면 무한한 이로움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다. 펜실베이니아의 아름다운 주도에 스승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전할 기회가 더욱더 많아지길 기대해 본다.

### 미국 뉴욕 소식

### 세계 평화를 증진하고자 진리를 나누다



[뉴욕] 세계를 경악시킨 911 사태가 발발한 지 2년이 흘렀다. 이 대참사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



원히 남아 스스로 반성하고 세계 평화를 위해 다 함께 노력해야 함을 일깨워 줄 것이다.

뉴욕 동수들은 '평화의 길'에 대한 메시지를 뉴욕 시민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 2003년 9월 14일 맨해튼에서 홍범 비디오 강연회를 개최했다.

준비할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동수들은 전단지 와 포스터를 배포하며 행사 홍보를 서둘렀다. 뉴욕 동수들은 바쁜 생활 가운데서도 성심성의를 다해 이번 홍범을 도왔으며 준비 작업에도 열성적으로 참여했다. 소호(SOHO)와 같은 문화 중심 지구의 사람들은 전단지를 적극적으로 받아 갔는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전단지를 달라고 자발적으로 다가왔다. 몇몇 중년층들은 마치 보물을 받은 양 집에서 읽기 위해 전단지를 가져갔다.

행사 당일 강연장은 스승님의 그림과 법상으로 아름답게 빛났다. 스승님의 강연 비디오 상영이 끝나자 많은 청중들이 남아 방법법을 배웠으며, 입문을 신청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뉴욕 동수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 형제자매들에게 봉사하고 또 스승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지혜를 키우고 성장할 수 있었던 데 대해 스승님께 감사드렸다. 그 중 스승님에게서 받은 가장 귀중한 선물은 전심전력을 다해 홍범 활동을 할 때 그들 마음을 가득 채웠던 형용할 수 없는 기쁨, 바로 그것이었다.



## 콜롬비아 소식

### 스승님의 사랑이 다시 한 번 보고타에 펼쳐지다

**[보고타]** 보고타에서 2002년에 처음으로 스승님의 비디오 강연회가 열린 데 이어 2003년 6월 21일에는 영국 동수들의 주최 하에 리치몬드 호텔 회의실에서 두 번째 강연회가 개최되었다.

동수들이 행사가 열리기 전 며칠 동안 호텔 옥상에 있는 체육관에 스승님의 음악을 틀어 놓자 건물 전체에 아름답고 상서로운 음악이 두루 퍼져 나가게 되었다. 야간 경비원에서 주방장에 이르기까지 호텔의 전 직원들이 건본책자를 매우 좋아했다. 강연회를 한층 빛내 준 그들의 친절한 지원 덕분에 우리 손님들은 밤늦게까지 맛있는 채식 케이크를 먹을 수 있었다.

강연회가 있기 전, 라디오 방송국 두 곳을 통해 행사 소식이 방송되었는데, 그 중 한 방송국은 무기



보고타 센터 개관식에서 스승님의 사랑으로 마음이 충만해진 동수들의 모습.





한으로 스승님의 음악을 방송해 주기로 했다. 행사 당일에는 억수같이 퍼붓는 빗속에도 많은 손님들이 일찌감치 도착해 좌석을 메워 행사장에는 사랑과 에너지가 충만했다!

이번 강연회가 성공함에 따라 우리는 6월 28일 만달라 심령 센터에서 이보다 약간 규모가 작은 강연회를 또 한 차례 가졌다. 이전 강연회에 왔었던 손님들이 많이 찾아와 스승님의 비디오를 다시 한번 보면서 스승님의 가르침을 보다 깊이 이해하고자 했다.

2002년 강연회에 참석한 후 방편법을 수행하고 있는 페다고기가 대학의 마리아 유제니아 사저는 자신의 집을 명상 센터로 사용해도 좋다고 약속한 바 있다. 올해 두 차례의 강연회를 마친 후 동수들이 유제니아 사저와 함께 개조 작업을 마무리함으로써 마침내 보고타에 단체명상 장소가 생기게 되었다. 이 명상 센터가 문을 열자 우리들은 소망이 이루어지게 된 데 대해 다 같이 기뻐했다. 스승님, 감사합니다!

#### 대한민국 소식

### 기쁜 마음으로 스승님의 가르침을 전하다

[인천] 한국 동수들은 2003년 8월 17일과 31일, 인천 서구 문화회관과 남구청 회의실에서 비디오 강연회를 한 차례씩 개최했다.

인천은 한국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로서 인천 국제 공항이 위치한 한국의 주요 관문이다. 이곳 동수들이 정기적으로 단체명상을 하고는 있지만 인천에

는 아직 스승님의 가르침이 널리 알려져 있지는 않다. 강연회가 열리기 전 영동과 서울, 대전, 부산 등지에서 동수들이 올라와 준비를 도와주었다.

인천 서구 문화회관 강연회에서는 많은 손님들이 채식과 스승님의 가르침에 큰 관심을 보였는데, 비디오 상영이 끝나자 1/3 이상이 남아 방편법을 배웠으며 일부 사람들은 입문을 신청했다. 행사가 끝난 지 사흘 후 수년간 단전 호흡을 수련해 온 한 남자가 인천 센터를 방문해 스승님의 비디오와 책을 보고는 말했다. “이제야 관음법문이 진리에 이르는 최고의 법문이라는 걸 알겠습니다!” 그는 또 스승님의 책을 여섯 권이나 구입해 집으로 돌아갔다.

인천 남구청 회의실에서 열린 강연회 때는 한 중국 여성이 강연회가 거의 끝날 무렵 도착해 방편법을 배우고는 인천 센터까지 따라왔다. 스승님의 책을 잠시 살펴본 그녀는 “제가 방편법을 배운 건 정말 운이 좋은 거군요! 남편에게도 권해서 함께 수행해야겠어요.” 하고 말했다.

한국 동수들은 이번 두 차례의 강연회를 준비하면서 찌는 듯한 8월의 무더위 때문에 땀을 비 오듯이 흘리긴 했지만 마음만은 행복하고 고양되었다. 기쁨과 사랑의 마음으로 인천에 스승님의 가르침을 전하고자 열성적으로 일한 작업 팀 동수들과 이런 기회를 안배해 주신 신의 은총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 태국 소식

## 위대한 어머니의 은혜를 기리며 선 행사를 열다



**[방콕]** 8월 12일은 태국의 어머니날이다. 올해 태국 동수들은 8월 9일과 10일 차청사오 지방에 있는 한 동수의 집에서 선이 행사를 열고 ‘영혼의 어머니’의 날을 경축했다.

스승님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어머니임을 아는 많은 동수들은 이번 행사에 참석해 어머니 스승님의 은혜를 기리고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했다. 명상 시간 동안 스승님의 장엄한 불찬을 틀어 두자 명상홀은 스승님의 가피력으로 가득 찼다! 또한 동수들은 스승님의 비디오테이프를 보면서 어머니의 사랑에 흠뻑 젖어들었다.

선 행사가 끝날 때 우리는 다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한 사람씩 가피물을 받았다. 참가한 동수들은 이번 행사에서 엄청난 축복과 영적인 이로움을 느끼고는 다음달에도 선이 행사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 포모사 미아오리 소식

## 세계의 영적 고양을 경축한 2003년 중추절



**[시후]** 2003년 8월 마지막 날 전세계 각국의 영성 의식이 놀랄 만큼 고양되었다는 스승님의 메시지를 받은 포모사 각 지역 동수들은 기쁨에 찬 가운데 이를 경축했다. 스승님의 발표 후 얼마 안 있으면 중국인의 화합과 경사의 상징인 중추절이었기 때문에 포모사 전국 동수들은 친지와 친구들을 동반하고 9월 첫째 일요일에 시후 센터에 모였다. 동수들은 신실하게 명상하며 스승님의 한없는 은총에 깊이 감사드리는 한편, 점심 식사 후 한 시간 동안 발랄하고 생동감이 넘치는 연극과 춤, 만담 등 멋진 공연을 통해 다가오는 중추절과 황금시대를 경축했다.





## 수행을 잘해야만 세상을 도울 수 있다

칭하이 무상사/ 1992. 4. 12. 포모사 시후 (원문 중국어)

비디오테이프 No. 241

명상은 마치 자동차가 계속 달릴 수 있도록 기름을 넣거나 충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는 계속 일할 수 있는 원기를 보충하기 위해 먹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고 일하기 위해 가능한 한 매일 먹는 것처럼 우리 영혼의 에너지도 매일 재충전해야만 큰일을 할 수 있습니다. 왜 큰일을 해야 할까요? 그건 우리가 이름을 날리거나 자신을 대단하게 여겨서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부당한 일들을 너무나도 많이 보기 때문

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고통이 극심하고 어떤 사람들은 인간으로서의 가치나 가장 기본적인 인격의 존엄성마저 보장받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야만적인 시대처럼 서로를 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도우려면 먼저 자신을 수양하고 수행을 잘하고 자신에게 엄격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세상을 돕는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을 도우려야 도울 수가 없습니다.

## 행사 메모

지구에서 진행 중인 영성 고양에 발맞춰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에서는 전세계 각지에서 비디오 강연회와 흥법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친구, 친척들과 참석해 스승님의 사랑과 지혜를 함께 나누십시오.

최근의 흥법 활동 일정에 대해선 다음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십시오.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eng/latest\\_news/events-datebook.htm](http://www.godsdirectcontact.org.tw/eng/latest_news/events-datebook.htm) (영어)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ch/latest\\_news/events-datebook.htm](http://www.godsdirectcontact.org.tw/ch/latest_news/events-datebook.htm) (중국어)

<http://www.godsdirectcontact.or.kr> (한국어)





제일선에서

칭하이 무상사 뉴스잡지 146호

# 신이 모든 것을 돌보신다

포모사 타오위안 도서전 종합 보도

타오위안 뉴스그룹



에 초청을 받아 참가했다.

동수들은 스승님의 가르침을 보다 생동감 넘치게 전달하기 위해 스승님의 출판물을 멋지게 전시하는 일 외에도 ‘오늘의 그림’, ‘만화로 영어 배우기’, ‘도서전 수수께끼 풀기’, ‘즉석 동화 구연’, 영상 강연회 등과 같은 풍부하고 다채로운 행사들을 기획했다. 또한 전시장에 컴퓨터를 설치해 애니메이션 동영상으로 책의 만화를 보여 주고, 커피 코너를 마련해 방문객들이 맛있는 과자와 음료를 들면서 독서를 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타오위안 현정부 문화국이 주관한 제2회 타오위안 도서전이 2003년 8월 22일부터 31일까지 열흘에 걸쳐 개최되었다. 백여 곳이 넘는 출판사가 참가한 이번 행사에 열흘 동안 2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참관하여 타오위안에서 열린 역대 행사 중 가장 성대한 도서전이 되었다.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출판사도 이 행사



만화로 영어 배우기-『스승님이 해주신 이야기』를 교재로 영어 교육 전문가인 동수들이 편안하고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어린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있다.

## 아기 보살, 노보살 모두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다

스승님의 지혜가 가득 담긴 만화집 『신이 모든 것을 돌보신다』 출판에 맞춰 동수들은 전시 부스의 배경을 책에 사용된 스펙트럼 색조로 꾸몄다. 부드럽고 파스하며 생기가 넘치는 색상은 다양한 연령대의 많은 방문객들로부터 주목을 끌었다. 많은 유아들도 부모를 끌고 우리 부스를 찾아와 참관했으며, 큰소리로 울던 두 살가량의 아기는 책표지의 스승님 사진을 보고는 울음을 푼 그치기도 했다. 한 사저가 그 아기 앞에 책을 보여 주자 귀엽고 순진무구한 이 아기 보살은 여전히 눈물이 그렇그렁한 채로 책으로 눈을 돌리곤 책에 뽀뽀를 하면서 조금 전 불편했던 마음을 완전히 잊어버렸다. 이 감동적인 장면을 본 아기 엄마는 미소를 지으며 아기를 우리 부스에 데려오지 않을 수 없었다. 아기와 엄마는 오랫동안 스승님의 그림과 출판물을 하나하나 감상하고는 떠나기를 아쉬워했다.

전시회 첫날 칠순가량의 한 노신사는 몇 시간 동안이나 우리 부스에 머물렀다. 그는 인사를 건넨 사저에게 감격스런 어조로 말하길, 자신은 오래전부터 관음법문을 열렬히 지지해 왔지만 나이 때문에 입문할 수 없었다고 했다. 특히 지역 센터에서 때마다 보내 준 뉴스잡지를 통해 내면의 기쁨과 평화를 얻곤 했는데 잡지가 온라인 출판물로 바뀌면서 관음 가족과도 소식이 끊겼다고 한다. 그런 그에게 있어 이번 도서전은 오랫동안 헤어졌던 가족과 만나는 재회의 장이 되었다. 그는 너무나 기쁜 나머지 “다시 한 팀이 됐어! 마침내 다시 한 팀이 됐어!” 하고 되풀이했다. 이 말에 깊이 감동한 사저는 두 팔 벌려 그의 귀향을 환영했다.

또한 전시장에서 일하던 다른 사저에겐 모종의 일로 심적 갈등을 겪으며 힘들어하는 친척들이 두 명 있었는데, 신의 묘한 안배 속에 그 두 사람이 아무 연락도 없이 이번 도서전 기간 동안 타오위안으로 그녀를 만나러 왔다. 이에 사저는 자연스레 그들을 우리 부스에 데려와 참관시켰다. 그 중 한 사람은 즉시 전시장에 넘치는 사랑의 기운을 감지했으며, 수행에 대해 전혀 무지했던 다른 한 사람도 우리 법문을 깊이 이해하고 나선方便법을 수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렇게 해서 스승님은 이번 전시회를 통해 길 잃은 양들을 집으로 인도하셨다.

## 신의 보이지 않는 안배는 항상 완벽하다

이번 타오위안 도서전을 준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신이 모든 것을 돌보신다’는 것이 확연히 증명되었다. 우리는 당초 작업 팀 동수들이 쉬고 명상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려고 계획했으나 주최측에서 배정해 준 것은 멀리 떨어진 지하실 한 칸이었다. 그런데 전시장을 꾸미는 첫날 동수들의 ‘휴식 공간’이 하늘에서 푹 떨어졌다. 우리 옆 부스가 장식 재료가 부족한 탓에 그 뒤쪽 공간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그 공간 넓이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과 꼭 맞아떨어졌다. 약간의 협의를 거친 후 이 공간은 작업 팀 동수들이 명상하기에 딱 좋은 장소가 되었고, 동수들은 신의 놀라운 안배에 감탄을 금치 못했다!

전시회가 끝나던 금요일에는 이웃 부스의 작업 팀 한 사람이 찾아와 우리 사형에게 진심으로 말하길, “이 말은 꼭 하고 싶었는데, 저는 정말 당신네 스승님의 DVD 보는 걸 좋아했어요. 그분의 말씀은 구구절절 이치에 꼭 맞더군요! 지난번 타이베이 국제 도서전에서 우리 부스는 당신네 부스 맞은편에 있었는데 거기서 스승님의 DVD를 본 후 전 계속



제일선에서

칭하이 무상사 뉴스잡지 146호

채식을 해 왔답니다!”라고 했다. 스승님은 온갖 놀랍고도 오묘한 방법으로 미풍이 호수에 잔물결을 일으키듯 인연 있는 중생들을 자연



## 대호평을 받은 어린이 연극

이번에 새로 나온 『신이 모든 것을 돌보신다』를 재미있고 역동적으로 소개하기 위해 타오위안 센터와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출판사는 8월 26일 신간 발표회를 가졌다. 주요 프로그램은 책에 나오는 두 가지 이야기를 가지고 만든 어린이 연극이었다. 또 교육 실무 전문가와 학자들이 참석한 좌담회도 열었는데, 전문가들은 『신이 모든 것을 돌보신다』 속에 담긴 의미를 밝히고 교육은 뿌리에서부터 시작되어 지혜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

신간 발표회에서 타오위안의 어린이 동수들은 ‘수행자가 된 도둑’과 ‘신의 안배는 언제나 최선이다’를 공연해 관객들의 열렬한 박수갈채를 받았다. 참관한 기자들도 우리 어린이 동수들의 연기가 전문 공연단 수준이라며 이구동성으로 극찬했다.

많은 손님들의 열화와 같은 요청에 따라 어린이 동수들은 도서전 마지막 이틀 동안 오후에 한 차례씩 공연을 했다. 멋진 공연 때마다 많은 관중이 몰려들어 전시회를 마무리하는 행사 중 가장 성황을 이루었다.

기자들이 공연을 한 어린이 동수들에게 어떻게 그렇게 자연스레 연기를 하고 긴장과 연습의 압박감을 극복할 수 있었느냐고 묻자 아

이들은 약속이나 한 듯이 답했다. “명상을 많이 했거든요! 명상을 해서 마음이 차분해져 연기도 자연스레 할 수 있었어요.” “연습을 많이 하니까 자연스레 자신감도 생기고 공연할 때도 긴장하지 않았어요.”

이번 도서전을 통해 스승님의 가르침을 인연 있는 사람들에게 전파하기 위해 동수들은 전시장 1층의 문화극장에서 영성 강연회를 4차례 개최했다. 강연회가 끝난 후 우리는 참석자들에게 우리 부스를 참관토록 하고 관심을 가진 사람들에게겐 방법법을 신청하도록 해 심신과 영혼을 고양시키는 궁극의 법문에서 이로움을 얻을 수 있도록 했다.

—맺음말—

열흘에 걸친 타오위안 도서전이 막을 내리긴 했지만 스승님의 사랑과 축복 속에 세상 사람들의 영성 의식은 끊임없이 고양되고 있다. 기쁨과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 번 스승님의 축복에 감사드리며 모든 것을 안배하시는 신께 감사드린다!



# 『신이 모든 것을 돌보신다』

—신간 발표 좌담회

포모사 타이베이 류더푸 사형 기록



8월 26일 타오위안 도서전에 서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출판사와 타오위안 센터는 칭하이 무상사의 지혜가 담긴 만화집 『신이 모든 것을 돌보신다』 신간 발표회를 열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참석한 이 행사에서는 어린이들의 멋진 연극 공연이 펼쳐졌으며, 아울러 5명의 아동 교육 전문가를 초청한 가운데 좌담회가 열려 이 책의 특징에 대해 심도 있게 토론하고 아동 교육에 대한 식견을 함께 나누었다.

타이베이 시 ‘인류 잠재 능력 계발을 위한 재가 독학협회’의 고문인 정산링 양은 “이 만화집에는 아동의 인격 발전을 위한 12가지 특성이 담겨 있습니다. 이는 인간 본성의 선량함, 사랑, 용기, 상상력, 그리고 대자연과의 연결 등 인간으로서의 자신을 인식하는 방면에 있어 탁월한 본보기를 제공합니다. 심신과 영혼의 균형을 강조하는 높은 수준의 아동 교육과 일치하는 점이지요. 그래서

아동 교육의 훌륭한 교재라 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했다.

이어서 독일 발도르프(Waldorf) 교육협회 교사 자격증을 가진 전업주부 라이메이신 씨는 “아동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어린이를 진심과 성심을 다해 대하는 것이며 사랑과 기쁨 속에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라이 여사는 『신이 모든 것을 돌보신다』는 칭하이 무상사가 어린이와 어른 모두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하면서 어린이는 천국에서 막 도착한 존재로 너무 어려 읽지는 못해도 사랑스러운 그림을 통해 잘 이해할 수 있다고 얘기했다. 또한 이 책은 사랑이 가득 담긴 책이자 모든 이를 위한 영적인 양서로도 적합하다고 했다.

포모사 바둑계의 명인인 조우 kuihong 선생은 이렇게 말했다. “어렸을 때 나의 사부님은 아이들을 가르칠 땐 아이의 입장에서 가르쳐야 한다고 종종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나 역시 지금 아이들에

게 바둑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 책에서 그와 상응하는 ‘동반 학습’의 진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부모가 성심으로 아이들과 함께하면 사랑의 에너지가 발산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집중을 잘할 수 있고 저 역시도 보다 잘 가르칠 수 있는 깊은 영감이 떠오릅니다.”

중학교에서 23년 동안 학생을 가르치고 있는 리보링 선생은 다음과 같이 얘기했다. “아동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어린이에게 정확한 가치관과 인생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심어 주는 것입니다. 많은 양의 지식을 주입시키기보다는 아이들 스스로 지식의 방법과 정확한 가치관을 얻을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만화집은 다양하고 심오한 방법으로 감동을 주며, 재미있고 생생한 그림과 간결한 글은 곱씹을수록 인생의 대진리를 발견하게 해줍니다. 이 책은 잠자리 책이나 연극 소재로 각색해도 훌륭하며 자



제일선에서

청하이 무상사 뉴스잡지 146호

너 교육의 가장 좋은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미국 직업 훈련원에서 강사를 역임했고 현재도 미국 임상심리학 상담치료사로 일하고 있는 리즈메이 여사는 이 책에서 크나큰 감명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녀는 책을 펴는 순간 머리말에서부터 본

문 이야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내용이 아동 심리 교육에 단계별로 활용하도록 완벽하게 갖춰져 있음을 발견했다. 첫 번째 단계에선 문자를 통해 행동으로 사랑을 전 개해 나가도록 하고 다음 단계에선 어린이들에게 다른 사람을 자 신처럼 대하도록 가르치며, 세 번

째 단계에선 어린이의 의식 수준에 초점을 맞추어 그들의 인격을 완전히 계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녀는 아동 교육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꼭 읽어 봐야 할 필독서라고 추천하면서 이 책에 담긴 경이로움과 깊은 뜻을 발견해 보길 희망했다.



지혜어록

## 놓아버리면 자재하다

청하이 무상사/ 1990. 9. 28.-10. 3. 포모사 시후 선철  
(원문 중국어) MP3-9

우리가 높은 경지에 있으면 헤아릴 수 없이 무수한 세계가 찰나간에 생겨났다 사라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마치 물거품 같습니다! 찰나라고 말할 것도 없이 거의 생기는 순간 동시에 사라집니다. 높은 경지에서 보는 모든 허상의 세계들도 그렇습니다.

고통스런 삶이 아주 길게 느껴지는 것은 우리가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시간과 공간이라는 새장에 갇혀 있기 때문에 길게 느껴지는 것이지, 사실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닙니다. 신이 보자면 1초, 찰나도 되지 않으며 시간으로 칠 수도 없는 짧은 순간입니다. 정말 빠르게 지나가지요! 단지 여러분이 어느 한 부분에 갇혀서 전체를 보지 못하기에 자신이 그곳에 있다고만 생각하는 것뿐입니다. 사실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무소부재합니다. 다만 그곳에 갇혀 있어서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래서 자신

이 거기 있다고 여기고 자신을 그냥 이런저런 것이라고만 생각하는 거지요.

가끔 작은 새나 곤충들이 창문에 갇힐 때가 있습니다. 그들은 창문 유리가 투명하고 방안이 밝기 때문에 창문에 아무것도 없는 줄 알고 유리에 부딪힙니다. 그 결과 머리가 붓고 눈도 보이지 않고 잠시 후엔 바닥에 떨어집니다. 열린 곳으로 들어오지 않고 창문 유리로 곧장 날아들어서 그런 거지요.

우리도 그와 같습니다! 그 어떤 것이든 놓아야 합니다. 즐거움마저도요. 그러면 괜찮습니다. 평안도 구하지 말고 건강이나 성공, 명예, 재산, 가정 등 그 어떤 것도 원치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고통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원하기 때문에 이곳저곳에 갇히게 되고 우리 코를 어딘가에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도와 달라고 울부짖지요.

## 과학적 관점에서 본 명상

미국 뉴스그룹 (원문 영어)



관음 수행자들에게 있어 명상은 먹고 자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일이며 아시아인과 기타 비서구권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영적인 헌신과 영혼의 고양과 관련된 유서 깊은 전통이다. 하지만 서양에서 명상은 다소 이국적이거나 동양 종교에 심취한 사람들이나 뉴에이지 철학자들이나 하는 풍조로 여겨졌다.

그러나 2003년 8월 4일 발행된 『타임』 지(誌)에 실린 ‘과학적 관점에서 본 명상’에서는 “현재 미국 성인 천만 명이 다양한 형태의 명상을 정기적으로 수행하고 있는데, 이는 10년 전에 비해 두 배로 늘어난 숫자”라고 밝히고 있다. 이 기사는 여러 작은 꼭지 기사들을 통해 명상 수행의 다양한 측면을 밝히고 있다. 한 기사에선 서양 문화에 있어 명상의 전통은 말 그대로 수세기 동안 사라진 것으로 여겨졌으나 최근 내면을 관하는 수행법으로 부활했다고 그 역사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다른 기사의 기자는 명상을 시도한 자신의 경험을 들어 자신은 회의적이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명백한 가치가 있음을 부지불식간에 토로하고 있다. 또 다른 기사는 명상 수행이 인간의 심신에 매우 긍정적인 이로움을 가져다준다는 연구 결과물을 실었다.

이 보도에는 명상과 신의 연관 관계에 대해서는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명상의 영적인 측면은 자주

언급되어 있다. 예를 들어 한 기사는 서양 문화에 나타난 명상의 역사를 다루면서 “(명상과) 놀랄 만큼 유사한 수련이 수세기 동안 서양 문화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었다.”라고 단언한다. 거의 모든 연구들이 인도 요가, 일본의 선종, 불교와 시크교 등 특정한 영적 수행 종파 수행자들의 지도 하에 이루어졌다고 한다.

보도에서는 명상 수행의 성공을 좌우하는 관건으로 내면에 대한 정신 집중 및 주의력을 들고 있다. 그 중 한 기사에선 명상을 위한 기본 단계까지 알려 주고 있는데, 그에 따르면 주의력의 분산을 막고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 조용한 장소를 찾을 것, 의미 있는 단어나 구절 등 마음을 가라앉히는 ‘소리’를 반복해서 외음으로써 정신을 한데 모으라고 되어 있다. 대체적으로 보자면 이 기사에서는 명상이 개인의 건강과 행복, 즐거움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걱정과 망상으로 시간을 허비하기가 쉽지만 명상은 나를 즐거운 곳으로 인도합니다.”라는 할리우드의 여배우 헤더 그레이엄의 말처럼 말이다. ‘과학적 관점에서 본 명상’은 심신과 영혼에 대한 명상의 유익함을 지적함으로써 오늘날 미국 영성의 방향에 대해 고무적이고 낙천적인 청사진을 제시한다.





## 영적 성장을 가늠하는 지표

청하이 무상사/ 1996. 12. 29. 미국 캘리포니아 롱비치 (원문 영어)  
비디오테이프 No. 571



질문: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좋은 일이나 나쁜 일, 자연 재해 등등의 일들에 의미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 배후에 숨은 의미를 이해하는 게 좋은 건가요?

스승님: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입니다. 때로 위기나 사고가 발생할 때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모든 것엔 그 나름의 목적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 숨은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면 아주 좋은 일이지요. 모른다 해도 상관 없습니다. 일은 일어납니다. 어떻게 일어나느냐, 혹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 자신과 진보된 정도를 돌아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때 우리는 자신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얼마나 높아졌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예를 들어 보지요. 어떤 기자들은 우리에게 대해 옳지 않은 기사를 쓰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화가 나서 내게 말하죠. 그들은 울면서 기자들 때문에 내 이름이 더럽혀졌다고 생각하고 나를 위해 화를 냅니다. 하지만 나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기자들은 자기 글을 쓰고 나는 그저 나일 뿐이니깐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것이지 그들이 나에 대해 어떻게 쓰느냐가 아닙니다.

만약 그들이 나에 대해 좋은 기사를 썼다고 내가 교만해지거나 지나치게 흥분하거나 의기양양해지며 대단하게 생각한다면 그건 나에게 나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에 대해 좋은 기사를 쓰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런 일에 대해 나의 태도가 좋은지 혹은 나쁜지

입니다. 나 자신이 중요한 거지 다른 일은 상관이 없는 거지요. 만약 그들이 나쁜 기사를 써서 내가 정말 기분 나빠하고 오랫동안 괴로워하며 그들을 미워하거나 되갚아 주고 싶어한다면 그건 나에게 좋지 않습니다. 그것은 곧 내가 진정으로 깨닫지 못해 어떤 순간, 어떤 상황에서도 평정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하니까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상황을 보게 된다면 그 일에 대한 여러분의 느낌, 반응, 문제 해결 방식 등 모든 것이 여러분의 공부가 됩니다. 그런 일은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지, 우리가 얼마나 참을성 있고 자비롭고 이해심이 깊은지 기억하도록 도와주는 하나의 도구인 것입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긴 하지만 나도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일이 그런 식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좀 더 아름다운 방식으로 일어나야 마

땅하지만 그건 나의 기대일 뿐, 그렇다고 해서 나는 나에 대해 나쁜 기사를 쓴 사람 때문에 화를 내거나 나에 대해 좋은 기사를 써 주길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나쁜 기사를 쓰는 건 나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조차 나를 잘 모르는데 어떻게 외부 사람이 나를 알겠습니까? 그건 분명하지요. 그들은 나를 모릅니다. 그리고 나는 밖에 나가서 모든 기자들에게 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알리지 않을 것입니다. 설사 그렇게 한다 해도 그들이 나를 믿어 줄 건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왜 그들이 나를 믿어야 하나요?

제자라고 하는 여러분조차 자발적으로 여기에 왔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신을 사랑하고 겸손하게 나에게 배우고 질문을 합니다. 때로는 나를 의심하고 나에 관해 나쁜 생각을 하기도 하며 나의 외모와 행동을 왜곡되게 바라보고 나를 비판하고 이 수행을 떠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나의 개성만 볼 뿐 나의 가르침을 보지 않습니다. 나는 원래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신은 나를 현재의 모습으로 만드셨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생각대로 모두의 마음에 들도록 나 자신을 바꿀 수 없습니다. 나는 나이며 완벽합니다. 그럼 된 거지요. 여러분도 완벽합니다. 그럼 된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자신의 완벽함을 모른다면 여러분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완벽한 자신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자기 생각에 불완전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면 바뀌도 됩니다. 하지만 나는 내가 완벽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중 박수) 내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실수를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실수를 해도 괜찮습니다. 나는 자신의 실수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계속 집착하지 않는 한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잘된 일일 수도 있지요! (스승님 웃음) 어쨌든 내 실수는 다른 누군가에게 필요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실수 같아도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실수가 아닐 수도 있는 거지요.

예를 들어 고민스런 감정 때문에 울고 있는 어떤 남자가 있다고 칩시다. 그가 단정하고 잘생겼을 수도 있겠지요. 내가 그를 안아 주거나 위로해 주면 여러분은 그렇게 해선 안 된다고 생각할 겁니다. 나는 여자이고 그는 잘생긴 젊은 남자니까 그러지 말아야 한다는 거지요. 그러나 나는 여러분의 생각엔 개의치 않습니다. 아마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은 내가 실수했다고 생각하겠지만 나의 실수는 그 남자에게는 꼭 필요했던 겁니다. 그에겐 나의 실수가 필요했어요. 내 명예를 좀더 완벽하게 유지하고 여러분의 존경을 받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했겠지만 나는 개의치 않습니다. 내가 왜 모든 이들의 의

견에 신경 써야 합니까? 다른 사람의 의견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나는 단지 그 순간에 내가 이해하는 대로 옳다고 여겨지는 일을 할 뿐입니다. 그리고 나는 내 신념과 그 순간의 느낌에 따라 행동하며 다른 것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나는 그런 식입니다. (대중 박수)

만약 외부의 신문이나 사람들이 나에 관해 나쁘게 말한다고 내가 그들을 싫어한다면 그건 내가 아직 이해가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그럼 좀더 수행을 하고 스스로를 통제하는 법을 배우고 더 많은 지혜를 활용해 상황을 보다 분명히 파악하도록 노력해야 하지요. 그게 내 일입니다. 그들의 직업은 자기가 쓰고 싶은 대로 쓰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고 나 또한 내 행동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일을 이렇게 봅니다. “그들은 나를 잘 모른다. 그들이 나를 이해하지 못하지만 괜찮다. 그들은 자신의 신념과 이해한 바, 자신의 의견에 따라 기사를 쓰며, 그것은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할 수 있다면 그들에게 설명을 하겠지만 그럴 수 없다면 그냥 잊어버립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수행자라고 할지라도 살면서 마주치는 모든 상황을 항상 즉각적으로 이해할 수는 없다는 것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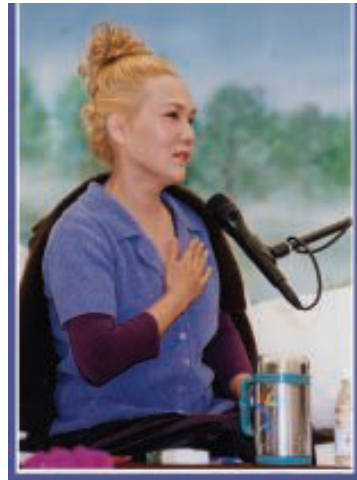
니다. 항상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수행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화를 낸 지 몇 분 있다가 즉각 반응을 보인 후엔 반성하고 ‘좀 전엔 왜 그랬지?’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 어떤 한순간에 자연스레 반응을 보이며 화가 나거나 보복하고 싶다 해도 자신을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가라앉고 나면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그렇게 반응해선 안 됐다. 그럼 어떻게 반응해야 좋았을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나와 상대방에게 가장 이로울까?’ 이렇게 해야 마땅합니다. 우리가 화를 낼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지나치게 화를 내선 안 된다는 겁니다. 지나치게 화를 내서 분노를 오랫동안 갖고 있어서 여러분의 육체와 정신, 상황에 영향을 끼치게 내버려두어선 안 된다는 것이지 때로 화를 내는 게 안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가끔은 화를 내는 것도 괜찮

습니다. 건강에 유익하지요. 하지만 화를 처리하는 것은 또 다른 겁니다. 화에 침몰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성장했는지 가늠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상황을 볼 수 있다면 좋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반응해야 여러분 자신에게 가장 좋은지 알도록 노력하십시오.

## 자신의 내적 치료 에너지를 개발하라

청하이 무상사/ 1993. 3. 16. 호주 시드니 (원문 영어)  
비디오테이프 No. 333



질문: 저는 보다 영적인 삶을 살고 싶습니다. 제 주변의 부정적인 것들에 대해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스승님: 영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모든 부정적인 영향과 인생에서의 그 어떤 부정적인 관점 등 모든 면에서 보다 포용력 있게 됩니다. 우리는 보다 관용적이 되고 보다 이해하게 되며, 우리의 긍정적인 자아는 치유 에너지를 발산해 일부 부정적인 기운을 바로잡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실 특별히 그 무엇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정말 영적이라면 상황이 저절로 어느 정도 개선될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 우리에게 조언을 구하거나 스스로를 개선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그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얘기해 줄 수 있는 위치에 있게 됩니다.



## 거울의 왕

청하이 무상사/ 2002. 5. 11. 미국 플로리다 (원문 영어)  
비디오테이프 No. 736



질문: 최근 저는 명상 중에 여기를 떠나면 바로 5세계로 가고 싶다고 스승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대중 웃음) 저는 정말 이곳에 다시 돌아오기가 싫습니다.

스승님: 요구가 별로 안 많군요! (대중 웃음) 그렇게 될 겁니다. (질문: 어떤 대가든 상관없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될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질문: 이번 생에서 겪을 만큼 겪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당신은 바뀌게 될 겁니다.

질문: 그러면 스승님은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스승님: 예, 가능합니다. 당신이 전심으로 그것만을 원한다면 분명 얻을 수 있습니다. 문제없습니다. 당신이 그 생각을 마음속에 항상 지니고 있다면 죽을 때가 되면 그곳에 가 있을 겁니다.

질문: 제가 죽기 전에 5세계에 이른다면 스승님을 좀더 잘 도울 수 있을 텐데요.

스승님: 오, 물론이지요. (질문: 그게 가능하다면 말이지요.) 그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가능할지는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당신에게 달렸지요. (질문: 어떤 일이든 하겠습니까.) 당신이 어떤 일을 해야만 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은 자신의 두뇌를 통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것을 꼭 해야만 하는 게 아니지요. 당신이 백 번 죽고 태어나야 성불할 수 있다거나 뭔가를 공양해야 성불한다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 내면의 영혼이 이생에서 성불하길 원

하는가에 달린 문제입니다.

질문: 영혼은 오기 전에 먼저 준비가 필요합니까? 얼마만큼 수행할 건지요?

스승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모든 영혼은 준비하고 싶어 하지만 내려오고 나서는 조금씩 흔들립니다. 환상의 세계의 마왕이 여기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아하! 고향에 돌아온 것을 환영한다. 너희가 얼마나 강한지 한번 보자. 여기엔 아름다운 여자가 있고 대통령의 지위가 있고 큰돈을 버는 큰 회사가 있지.” 그러면 여러분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합니다. 그리고 미녀를 모시고 사느라 지치고, 스승을 찾고 싶어도 어디서 찾아야 할지 모릅니다. 결국엔 기력을 다 잃고 병에 걸려 죽고 맙니다. 그리고 고선 생각하겠지요. “그래, 이제 가야 할 시간이야. 다음번에 다시 해보자!”



질문: 그때 감독이 “컷!” 하고 말하는 거죠.

스승님: 맞아요. “컷!”이라고 하지만 그게 정말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신을 찾기로 마음먹었으니까요. 어쨌든 우리가 여기 내려오기 전에 그러기로 계획되어 있었습니 다. 여러분은 자기 얼굴을 보기 위해서 거울을 찾고 싶어하는 겁니다. 비록 거울이 환상이긴 하지만 그래도 필요합니다. 거울 속에 있는 것은 당신이 아니지만 자기 모습을 보기 위해서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거울을 들여다보고 자신을 알아봅니다. 아니면 그 외 어떤 방법으로 자신을 보겠습니까? 내가 여기 서서 내 모습을 봐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어디에서 합니까? 거울은 환상입니다. 거울 속에 보이는 모습은 당신이지만 당신이 아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세계는 신으로 가득 차 있지만 신은 아닌 것입니다. 진정한 신은 내면에서 바깥에 있는 이 신을 보고 있습니다.

질문: 그러면 이 세상은 실제 세계에 대한 잘못된 영상인 거군요?

스승님: 이 영상도 꽤 괜찮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거울을 볼 때 혼란스러워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왕의 이 거울은 보통 거울이 아니니까요. 그것은 마법의 거울, ‘벽에 걸린 거울\*’입니다. 그냥 거울이 아니라 거울 중의 거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혼란스러운 겁니다. 우리는 거울이 한꺼번에 보여 주는 온갖 것을 보면서 “아, 저건 뭐지? 저기 뒤편에 있는 건 뭐지? 또 저건?” 하고 말

합니다.

당신은 심지어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조차 잊어버립니다. 거울은 너무나도 커서 온갖 것을 비출 수 있으므로 여러분은 이 환상 속에서 길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온갖 것을 쫓아다니며 “세상에나! 이걸 정말 좋아 보인다. 저것도 아주 멋져 보이는걸.” 하고 느낍니다. 그러면 거울 속에서 길을 잃고 망각합니다. 그것이 거울이라는 걸 깨닫는 데는 몇 초밖에 안 걸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불성을 깨닫는 시간 또한 우주적인 시간에서 보자면 눈 깜짝할 시간이지요.

\* “거울아, 거울아, 벽에 걸린 거울아.”는 『백설공주』에 나오는 한 구절. 『백설공주』에 나오는 계모는 그 거울이 비추는 모습을 진짜라고 믿었다.



감로법어

## 이생에서 해탈하라

청하이 무상사/ 1993. 11. 13. 미국 텍사스 휴스턴 (원문 영어)

비디오테이프 No. 394

이번 생에서 수행할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은 다른 사람과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온갖 증오와 선입견, 비판적인 태도, 부정적인 생각에서 해탈하는 것입니다. 이생에서 해탈한다면 분명히 높은 경지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런 부정적인 집들은 우리를 이 물질 세계, 또는 삼계에 묶어 두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다면 살아 있는 동안 해탈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이지, 비전을 보거나 소리를 듣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를 키워 내는 음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조니단 피 사형/ 미국 텍사스 오스틴 (원문 영어)

사랑하는 스승님께

저에겐 올해 14세 된 크리스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아직 입문하지는 않았는데 엄마(전처)와 함께 살고 있지요. 최근 그 아이는 자신에게 가장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도와주신 스승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며 제게 대신 고마움을 전해 주길 바랐습니다. 이 아이의 이야기가 스승님의 무수한 신기한 이적 중에선 대자연의 작은 풀 한 포기밖에 되지 않겠지만 제게는 그 의미가 매우 큼니다.

저는 1995년 미주리에서 박사 학위를 딴 후 시카고로 옮겨와 가족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당시 크리스는 7세 정도 되었는데, 저는 직업을 구하면서 아이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크리스는 저와 함께 채식을 했고요. 애 엄마는 아이가 채식하는 걸 그다지 반기지 않는 것 같았지만 반대하지도 않았고 우리와 함께 채식 음식을 먹기도 했습니다. 크리스가 잠자리에 들기 전 이야기를 들려 달라고 해서 저는 스승님이 해주신 잠자리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곤 했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그를 편안하게 해주고 달콤한 잠에 빠지게 해 그를 행복하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때로 크리스와 함께 재미있는 디즈니 만화 영화를 보곤 했는데, 『미녀와 야수』 같은 영화를 보면서 설명해 주곤 했습니다. “이 버릇없는 젊은 왕자는 사랑의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야수의 수준으로 떨어진 거란다. 화를 잘 내고 참을성도 없고 냉혹하고 무정한 동물로 변한 거지. 그러다 사랑을 상징하는 아름다운 소녀가 와서 그의 가슴을 깨어나게 하자 야수는 아름다운 신에 대해 무조건적인 사랑을 펼친 후 원래의 모습과 왕자로서의 신분을 되찾게 되었단다.” 저는 또 그런 이야기 속에 숨은 뜻

을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이 사랑하는 스승님의 지혜 때문이라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는 아주 자연스레 당신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결코 잊을 수 없는 다음의 일화에선 스승님을 사랑하는 크리스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 내리쬘는 햇볕에서 스승님을 보호하다

1995년 여름 시카고는 매우 무더웠습니다. 저는 낡은 도요타에 크리스를 태우고 있었는데 뜨거운 햇볕이 창문에 반사돼 눈이 부셨지만 에어컨도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열을 식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신호등에 걸려 있을 때 크리스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백미러에 걸린 스승님의 법상을 작은 손으로 가려 그늘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고 묻자 크리스는 “칭하이 스승님도 더우실 거예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 스승님의 법상을 그리다

당시 저는 전공에 맞는 일을 찾지 못해서 생계를 위해 소화물 취급소에서 소포를 분류하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자 전처가 말했습니다. “당신 아들이 당신 스승님을 그리느라 정신없어요.” (그 사진은 포모사 양명산에서 찍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데 정신이 팔려서 내가 집에 온 것도 모르더라고요. 내가 한참이나 쳐다보는데도 눈치채지 못했어요.” 그녀의 말을 듣고 난 후 저는 크리스의 그림을 보고 그 어린아이의 순결한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았답니다.



몇 달 후 상황이 바뀌어 크리스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제가 떠난다는 것에 깊이 상심했지만 저는 “아빠가 먼 곳으로 일하러 가게 됐어.” 하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떠나기 전 어느 날 오후 저는 시카고에서 100마일 떨어져 있는 일리노이 센터의 선일 행사에 참가하기로 했습니다. 센터로 떠나기 전 크리스는 아파트 밖까지 나와 저에게 대어섯 번이나 작별 키스를 했고 차창 옆에 서서 슬픈 모습으로 저의 떠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시카고의 쌀쌀한 늦가을 바람이 노란 낙엽을 떨어뜨릴 때 크리스는 저를 통해 나타난 당신의 사랑을 잃어버림으로써 이별의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제게도 매우 힘든 일이었지만 목적지로 향해야 했기 때문에 그 아이를 뒤에 남겨 놓고 떠났습니다. 스승님께서 계속 그 아이와 애 엄마를 돌봐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지요. 비록 우리 사이에 부부로서의 사랑과 관계는 끝나 버렸지만 저는 그녀를 오랜 친구로서 대하고 있습니다.

이리저리 떠돌던 지난 몇 년 동안 크리스와는 자주 만나지 못했고 전화도 제대로 못 했지만 크리스는 예전과 다름없이 저를 매우 좋아합니다. 아이를 만나러 시카고에 갔던 어느 겨울이 생각납니다. 당시 그들이 제가 잘 모르는 곳으로 이사를 해서 좀 헤매다가 전화를 했더니 애 엄마는 길을 가르쳐 주면서 “5분 정도만 오면 돼요. 당신 아들은 진작 밖에 나가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요.” 하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도착했을 때는 거의 45분 정도가 지난 다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들은 저를 보고 싶은 마음에 눈 속에서도 발을 동동 구르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몇 년 뒤 제가 텍사스 오스틴에 정착하자 크리스는 가끔 저를 만나러 왔습니다. 그는 이제 건강한 십대가 되었고 미국에 이민 온 아시아계 아이들 같은 분위기를 띠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종교적이고 영적인 문제를 토론하기 좋아해서 이메

일이나 전화로, 또는 함께 있을 때 스승님에 대해 질문하곤 합니다. 그는 반 친구와 선생님, 때로는 엄마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길 때면 때로 혼란과 조바심을 느끼고 화를 내며 자기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는지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그럼 저는 그를 위로하며 아직도 스승님을 믿고 있다면 스승님께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해보라고 하면서 스승님을 소중하고 가장 믿을 만한 친구로 보면 된다고 얘기해 줍니다.

한동안 소식이 없더니 이달 초 크리스가 갑자기 이메일을 보내왔습니다. (그 이메일을 밑에 실었습니다.) 그는 이메일에서 최근 도움이 필요한 바로 그 순간에 스승님께서 도움을 주신 데 대해 대신 감사를 전해 주길 바랐습니다.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에 대한 감정이 몇 년 전처럼 강렬하진 않아도 전 아직도 깊이 아이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스승님, 저는 지난 10년 동안 스승님께 이 편지를 쓰고 싶었습니다. 저는 가장 소중한 친구인 당신과 대화하고 싶었지만 무언가가 항상 이런 대화를 가로막곤 했습니다. 저는 많은 것들을 생각했고 제가 원했던 이상과 저 자신이 너무나 거리가 멀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신을 숨기려 했습니다. 저는 수행이 좀더 진보해서 가장 멋진 모습을 보여 드리고 싶은데 그렇지 못한 것이 항상 불만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스승님의 사랑하는 아들 가운데 하나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스승님은 제가 크리스를 사랑하는 것 그 이상으로 훨씬 더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스승님과 이 작은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저의 가장 소중하고 사랑하는 친구인 스승님께 가장 신실한 안부를 전하며,

조나단 올림





## 2003년 8월 6일 크리스의 이메일

안녕, 아빠!

한동안 아빠에게 글을 못 썼네요. 오스틴에 별일은 없는지, 아빠는 잘 계신지 궁금해요. 아마 제가 이번 주 금요일에 이집트에 가는 건 아시겠지만 좀 전에 제가 수영 대회 100야드 평영에서 5등하고 왔다는 건 모르실 거예요. 아빠의 스승님께 대신 감사의 말씀을 전

해 주세요. 제게 도움이 아주 결실할 때 스승님께서 도와주셨거든요. 지금은 많이 말할 수 없지만 내일 자세한 내용을 알려 드리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 사랑해요.

## 2003년 8월 26일 크리스의 이메일

아빠.

이제 이야기할 시간이 생겼어요. 주(州) 수영 대회에서 스승님이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대회에 나갔는데 지난 2년 동안 성적이 안 좋아서 좀 긴장이 됐어요. 하지만 자신도 있었어요. 성적이 선두에 있었기 때문에 우승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실망스럽게도 경주마다 내 기대보다 성적이 안 나온 거예요. 나한테 상대도 되지 않았던 사람들, 특히 내가 쉽게 이기곤 했던 어린아이한테도 져서 정말 화가 났어요. 매번 경주마다 9등, 10등을 하게 되자 너무나 분했어요. 시합 세 번째 날이자 마지막 날에는 지칠 대로 지쳤어요. 거의 모든 경기에 참가해 수영을 한 데다 저녁에는 0.5초 차이로 다른 아이한테 졌거든요.

그때 저는 화를 내 봤자 도움이 되지 않으니 경주에 대해 생각하자고 마음먹었어요. 생각해 보니 저는 원래대로 워밍업 운동을 한 줄 알았는데 둘째 날과 셋째 날 저녁에 운동을 빼먹었던 거예요. 그러니 준비를 잘 하지 못했던 거지요. 코치 선생님이나 저도 제가 잘 해낼 것이라고는 별로 기대하진 않았지만 10분간 쉬는 시간 동안 경주에 대해 생각하고 워밍업을 한 후 저는 인내심과 훈련, 신과 칭하이 스승님의 지혜에 모든 것을 맡기기로 마음먹고는 칭하이 스승님께 기도드렸어요. “스승님, 제가 정말 수영 선수로 가망이 없고 등수 밖으로 밀려날 거면 확실히 나쁜 성적으로 알려 주시고 또 제가 이 실패를 딛고 치욕스러움을 잘 넘길 수 있도록

특 용기를 주십시오. 하지만 제게 아직 이길 기회가 있다면 다가올 도전을 헤쳐 나갈 힘을 주세요. 이번 대회는 저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제 주변의 그 어떤 사람들보다 더 혹독한 연습을 치렀어요. 이젠 코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제가 공을 들인 노력과 고통이 헛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이젠 저한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전엔 결코 이런 마음을 가진 적도 없었고 이렇게 화가 난 적도 없었어요. 절 도와주세요, 칭하이 스승님!”

경주하는 동안 제 마음은 이전과는 달리 침착하고 평온했어요. 몸이 계속 피곤하고 아팠지만 뭔가가 ‘고통을 잊고 시합에 전념해라, 너는 이것을 이루기 위해 여름 내내 고생했지 않은가.’ 하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경기가 끝난 후 이번 대회 중 가장 좋은 성적을 거뒀어요. 전 피곤한 데다 준비 운동도 못 했는데도 이번 주 대회에서 5등을 했어요. 저만큼 피곤했던 선수는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선수들은 이 100야드 평영에서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 일부러 다른 경기를 취소했거든요. 제게 정말 중요한 일을 도와주신 칭하이 스승님의 선물에 감사드려요. 수영할 때 마치 신이 직접 제 경주를 응원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제게 칭하이 스승님이 계셔서 정말 기뻐요.

아빠, 스승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해요.

그럼 두 분 다 안녕히 계세요.



두옹 비 사저/ 미국 인디애나 해몬드 (원문 어울락어)

청하이 스승님을 처음 만난 후 우리 가족에게 일어난 온갖 일들은 “신의 전능한 힘은 업을 바꾼다.”라는 스승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입증하는 증거이다. 스승님의 은총과 신실한 관음법문 수행으로 우리 가족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남편과 나는 어울락에서 태어났고 지금은 미국 중서부 일리노이와 인디애나가 접경한 도시에 살고 있다. 나와 남편은 둘 다 재혼인데, 나는 이전 결혼에서 네 아이가 있었고 남편도 네 아이가 있었다. 그리고 우리 사이에 막내아들이 태어나 전부 합쳐 아홉 명의 아이가 있는 대가족이 되었다!

4년 전 한 친구가 스승님의 비디오테이프를 빌려 주어 나와 남편은 그날 저녁 함께 비디오를 보았다. 남편은 보고 또 보며 밤새 비디오를 보고는 아침에 그대로 일하러 갔다.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남편은 스승님의 가르침이 너무나도 완벽하고 훌륭해서 그 말씀에 따라 채식하기로 결심했다고 얘기했다. 우리는 전에 채식을 한 적이 없었고 나도 채식 요리를 할 줄 몰랐지만 나는 최대한 신경을 써서 남편에게 채식 요리를 해주었다. 그리고 몇 달 동안 채식을 하면서도 건강한 남편의 모습을 지켜보고선 나도 채식을하기로 결심했다.

우리가 스승님의 테이프를 본 지 다섯 달 후 남편은 조지아 주 애틀랜타에서 입문했다. 그 이후 나와 막내아들도 입문해서 우리 가족은 현재 모두 신실하게 관음법문을 수행하고 있다. 우리는 단체명사에 참석하라는 스승님의 권고에 따라

주말마다 시카고나 인디애나폴리스로 차를 몰고 가 단체명상에 참가한다.

입문하기 1년 전 나는 심각한 심장병을 앓고 있었다. 매주 투석을 하러 병원에 가야 했는데 한번 투석하는 데 보통 4시간씩 걸렸고 집으로 돌아온 후에는 매우 지쳐서 걷는 것도 힘들 정도였다. 그러나 입문한 후 병은 여전하지만 나의 정신적·육체적 상태는 같은 병을 앓고 있는 다른 환자들에 비해 훨씬 더 좋아졌다. 처음 내가 채식한다는 것을 안 의사는 고기를 먹어야 체력이 붙는다고 강력하게 반대했지만 나는 그 말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몇 년 후 내가 다른 환자들보다 훨씬 빨리 회복되는 것을 본 의사는 생각을 바꿔 계속 채식하라고 얘기한다! 나는 병은 업에서 비롯된 것이란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전처럼 불평하지 않고 내 상황을 받아들이면서 나의 업이 씻겨질 수 있도록 관음법문을 계속 수행하고 있다. 단체명상에 참석할 때면 센터에서는 나를 위해 한 곳을 안배해 줘서 나는 투석 기구를 옆에 두고 명상할 수 있다. 스승님은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돌봐 주신다!

관음법문을 수행한 후 우리에게는 여러 면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예를 들어 우리 지역 관공소에선 우리 집을 인근에서 정원이 가장 아름다운 집으로 표창하는 축하 편지를 보내며 우리에게 계속 환경을 아름답게 가꾸어 달라고 격려했다. 또 어울락에서 온 시누이는 지난 30년 동안 채식을 하고 싶어도 계속 실패했는데 우



리와 함께 지내는 동안 스승님의 비디오를 보고 방편법을 배운 후 채식을 제대로 할 수 있었다. 이것은 바로 “우리는 명상으로 세상을 축복한다!”는 스승님의 말씀과 같다.

내 아이들과 남편도 많이 변했다. 입문 전 나는 큰딸과 단 몇 분도 대화할 수 없었고 남편도 자신의 큰아들과 얘기만 했다 하면 싸우곤 했었다. 그러나 지금은 아이들 모두가 온순해지고 효성스럽고 전보다 더 자주 찾아온다. 남편의 큰아들은 결혼을 해서 세 살, 두 살배기 손자를 두었다. 손자들은 나이가 어리지만 영혼은 매우 성숙하다. 우리 집을 방문할 때면 아이들은 식사하기 전에 그릇을 높이 올려 스승님께 축복을 청하고 스승님의 법상을 볼 때마다 합장하고 절을 하면서 “아미타불!” 하고 말한다.

한번은 손자들이 아빠와 함께 우리 집에 왔는

데, 마침 내가 한창 바쁠 때였다. 손자들이 소란을 피우며 이리저리 뛰어다니기에 침실에서 스승님의 불찬 테이프를 가져와 틀어 주면서 아이들이 좀 차분해지길 바랐다. 그랬더니 과연 효과가 있어서 아이들은 조용히 앉아 스승님의 목소리를 듣기 시작했다. 그러더니 나중에는 녹음기를 그 조그만 품에 끌어안고는 정신을 모아 거기서 흘러나오는 스승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러다 스승님이 ‘아미타불’ 불찬을 시작하자 즉시 녹음기를 내려놓고 두 손을 모아 카세트에 대고 계속해서 절을 했다. 얼마 후 애들 아빠가 집에 가자고 말했지만 아이들은 신발을 벗어던지고 녹음기를 꼭 붙잡고는 돌아가려 하지 않았다.

이 아이들은 정말 어린 수도승 같다. 나이는 어리지만 그들의 영혼은 이미 살아 계신 깨달은 스승을 알아본 것이다!

#### 중국 광시 성 동수

나의 외할머니는 올해 78세이다. 어느 날 밤 저녁 식사를 하시던 중 할머니는 방에서 관음보살이 천천히 당신을 향해 걸어 들어오는 걸 보셨는데, 하얀 옷에 머리엔 보석으로 띠를 두른 매우 아름다운 모습이었다고 하셨다. 할머니가 무릎을 꿇으시려고 하자 관음보살이 사라졌다고 한다.

또 한번은 식당에서 승복을 입은 한 출가승이 할머니 쪽으로 걸어와 맞은편에 앉았는데 할머니는 그 스님의 하반신만 볼 수 있었을 뿐 상반신은 정확히 볼 수 없으셨다고 한다. 같은 동수인 나와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스승님의 화신이 할머니에게 나타난 것임을 바로 알 수 있었다. 이것은 두

달 전 할머니가 우리 집으로 오셨을 때 생긴 일이었다.

할머니는 건강이 안 좋으셨지만 우리 집에 오셔서 같이 지내신 후 점차 좋아지셨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할머니가 다른 친척집에 가시기만 하면 몸이 불편해지시는 것이었다. 우리는 스승님께서 할머니를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안다. 사랑하는 스승님,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이 경이로운 체험들이 동화 같겠지만 우리 관음 가족들에게는 평상적인 일로서, 사랑하는 스승님은 이렇게 우리를 신기하고 아름다운 세계로 데려다 주신다.



스승님이 말씀하시기를

청하이 무상사 뉴스잡지 146호



## 선 행사 동안 전심으로 집중하고 세상을 놓아버려라

청하이 무상사/ 2002. 12. 28. 미국 플로리다 크리스마스 국제 선오  
(원문 영어)

진보한 사람들, 축하합니다. 여러분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은 많은 것들을 놓았습니다. 그래서 진보한 겁니다. 진보하지 못한 사람들은, 사실상 진보를 하긴 했지만 너무 작습니다.

여러분은 항상 빨리 진보하기 위한 방법을 찾으면서 늘 내게 묻습니다. “스승님, 어떻게 하면 빨리 진보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나는 “놓아버리고 놓아버려요. 모든 것을 놓아버리세요.” 하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곳에 선을 하러 올 때도 많은 친척, 친구, 아들, 딸과 함께입니다. 하루 종일, 심지어 평생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도 이곳에서 신을 위해 보내는 단 5일 동안에도 신은 항상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보하지 못하는 겁니다.

유일한 비결은 놓아버리는 것

입니다. 신은 모든 것을 돌보십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신의 은총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은 여기 와서 내게 자기 운명에 개입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나도 가끔 신에게 그런 부탁을 할 수 있지만 그건 내 문제가 아닙니다. 난 개입할 수 있고 여러분을 위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문제예요. 여러분이 그런 의도로 여기에 왔다면 그것만 얻게 될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 아들의 병이 낫거나 딸이 결혼을 잘하게 되겠지만 그 정도일 뿐, 보물 전체를 얻지는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겐 참 안된 일이지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이 어떤 질문을 하든, 세속적이거나 사소한 질문을 해도 번거롭게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라면 모두 답해 줄 수 있습니다. 어떻게든 여러분을 도울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대신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단 5일을 이곳에 와 있는데도 신을 전혀 생각하지 않으니까요.

단 한 번이라도 오직 신만을 위해 이곳에 와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안 그래요. 여러분은 늘 여기 와서 변명을 하고 온갖 청탁을 합니다. 이런 청탁은 집에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진심으로 말하건대, 여러분이 신이나 스승의 힘에 기도할 때면 응답을 받습니다. 우리는 귀머거리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길 바랍니다. (대중 박수)

또한 ‘내(스승님이 당신의 육체를 가리킴)’가 여기 있다거나 내가 병이 들고 내가 아프고 내가 약하고 내가 작고 내가 크고 내가 이러저러하다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뇨, 아니에요! 그건 내가 아닙니다. 이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귀머거리도 아니고 병어리도 아



니고 장님도 아니며 어리석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족이나 친구, 고민이나 불행을 갖고 와서 여기서 끝없이 한탄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고 싶은 말은 뭐든지 내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머니, 친구, 기대어 올 수 있는 어깨가 되어 주길 원한다면 물론 그 모든 게 가능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런 것은 이차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요.

선 행사에 오면 아무런 방해도 없는 이 시간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가족이나 친구의 요구도 없고 장사나 일, 상사, 동료, 남편이나 아내도 없지요. 우리가 여러분을 위해 떨어뜨려 놓았으니 다툼도 없고 아이들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잘 집중하고 이 시간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마치 이 시간이 지나면 죽는다고요. 그러면 뒤에 남을 가족들에 대해 걱정할 틈도 없을 겁니다! 죽을 때 그들을 걱정할 겁니까? 아니지요! 또 내가 내일 살아 있을지도 모르는데, 5일 후에도 내가 여기 계속 있으면서 다시 선 행사를 열지는 더더구나 모를 일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한심해요.

진보하지 못한 사람들이 진짜 한심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선에 올 때마다 우리는 오직 하나, 유일한 ‘남편’, 유일한 ‘아내’에게 집중하라고 상기시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정절입니다. 이 세속의 배우자에 대한 충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천국의 배우자에게 충실하라는 거지요. 이곳의 배우자는 언제든 여러분을 떠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추해지거나 병들거나 늙으면, 또는 더 나은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요. 즉 여러분과 인연이 약해지고 전생에 더 좋은 감정을 가졌던 누군가를 만나면 여러분은 끝장나는 거지요. 그러나 천국의 배우자는 우리 곁을 결코 영원토록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에 대해 불성실합니다. 안된 일입니다. 아무튼 나는 진보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번 기회에 교훈을 얻길 바랍니다. 언제든, 혹은 다음 기회가 생긴다면 그때는 꼭 기회를 잡으십시오. 알겠죠? (대중 박수)

나는 여러분에게 화가 난 것도 아니고 좌절하지도 않습니다. 난 아무렇지도 않아요. 단지 매 순간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할 뿐입니다. 그러니 나쁘다고 생각되는 일이 있으면 지금 당장 내게 도로 돌려주십시오. 집으로 돌아가도 되고요. 여러분은 자유롭습니다. 여러분은 그대로 훌륭하고 완벽하며 똑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온 이상 나는 여러분을 바로잡고 씻어내야 합니다. 이런 과정은 때로 우리 양 쪽에게 매우 고통스럽기도 하지만 괜찮습니다. 이제 끝났고 여러분은 자유입니다. 5일 후면 이곳에서 좋고 나빴던 모든 게 지나가 버립니다. (대중 박수)

여러분은 완벽하고 사랑을 받고 있으며 필요한 존재입니다. 평소에도 그렇고 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몇 가지 처방은 여러분이 필요 없다거나 사랑 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건 그때 당시 필요에 의해 먹어야 하는 약일 뿐입니다. 여러분에게 필요 없는 건 다 돌려주십시오. 즉시 여기 돌려주고 자유롭게 집으로 가십시오. 여러분은 평소대로 완벽합니다. 진보하지 못했어도요. 여러분은 돈을 들여 또 다른 공부를 한 것 뿐입니다. 내가 말한 건 금전적인 면에서 말입니다. (스승님 웃음) 여러분은 많은 돈을 써서 여기에 왔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돌아가는 겁니다.

그건 내 잘못이 아닙니다. 난 모든 것을 팔았습니다! 모두에게 살 기회는 평등했어요. 나는 특별한 누구를 위해 남겨 두지 않습니다. 누구나 같은 상품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고자 원하기만 하면 기회가 있는 겁니다.

진보한 사람들은 기뻐하고 스스로 뿌듯해해야 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어떤 상이나 증서를 주지는 않았지만 여러분은 스스로 상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스스로 증서를 가졌습니다. 그러니 기뻐해야 마땅합니다. (대중 박수) 전혀 진보하지 않은 사람들이나 조금 진보한 사람



들은 어쩔 수 없이 조금밖에 진보하지 못했지만 다음 기회에 실수를 만회하기를 바랍니다. 다음번에 만약 시간이 있고 이런 선에 올 기회가 생긴다면 죽었다치고 일념으로 집중하십시오. 여러분이 죽었다면 아무도 어찌지 못합니다. 그러니 문을 나설 때 이마에 '죽었음' 이라고 써 붙이고 이번 선에서 나갈 때 그것을 떼고 '다시 살아났음!' 이라고 하십시오. 정말 그래야 합니다. (대중 박수)

세상에서 죽지 않으면 신과 함께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선 "하느님과 재물 신을 함께 섬길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일념으로 집중해야 합니다. 이번 선 동안 내가 취한 모든 조치는 여러분을 보호하고 집중된 상태로 이끌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해주고 토닥이고 안아 주고 야단치는 것, 그 모두가 5일간 여러분을 돕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러므로 내가 좀 부드럽게 대한다고 해서 자신이 특별하다고 생각하거나 내가 야단친다고 해서 자신이 엉망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모두 똑같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똑같이 사랑합니다. (스승님이 눈물을 글썽이며) 나는 여러분을 정말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대중의 큰 박수가 끊이지 않음)

때로 여러분의 수행에 좋지 않다는 것을 알기에 내가 좋아하지 않는 행동을 해도, 혹은 여러분의 수행에 좋지 않은 뭔가를 마

음에 품고 있어도 나는 그것이 여러분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냥 환경이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었을 뿐이지요. 이 무서운 세상이 여러분을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간 겁니다.

나는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모진 말 같은 것을 하고 싶지 않지만 해야 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요. 하지만 내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때로 아이들을 야단치지만 언제나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멈출 수 없듯이 말입니다. 아이가 아프면 병원에 데려가야 합니다. 그들에게는 치료가 고통스럽겠지만 여러분은 아이들이 낫기를 바랍니다. 어찌면 자녀를 정신 병동에 입원시킬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의 두뇌가 좀더 분명해지길 바라니까요. 이 치료법밖에 없지만 이 치료는 절대 기분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좀더 명상하려고 노력해서 이런 종류의 치료를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중 일부는 여기 오기 전 천국에서는 더 많이 깨달은 상태였지만 그보다 더 많이 깨닫고자 이곳에 왔습니다. 예를 들어 천국에서 80% 깨달은 상태였다고 합시다. 그건 4세계 정도에 있다는 뜻인데 여러분은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을 알고서 나를 찾아 이곳에 내려온 겁니다. 내려오면서 여러분의 깨달음은 천국에 있을 때보다 조금 떨어지고, 이곳에서 고통받고 괴로워하면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잊어버리고 천국의 상황을 잊어버립니다. 이런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서 더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여러분이 기억해 내고 이곳에 내려오기 전의 등급을 회복하고 더 나아가 그보다 높은 경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나는 여러분을 위해 가능한 한 모든 일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한 자신의 진아를 기억하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기억하는 게 적을수록 더욱 고통스럽게 됩니다. 어쨌든 나는 여러분 스스로 자신이 괜찮고 많은 사랑과 존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훌륭하니까요. 과거에 나뻐는데 지금은 좋아졌다는 말이 아닙니다. 상황이 여러분을 나쁘게 만드는데도 여러분이 좋게 행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훌륭하다는 겁니다. (대중 박수)

여러분은 가정과 사회, 친구, 동료, 직업, 상사, 남편, 아내 등으로부터 아주 많은 압박을 받고 있지만 여전히 최선을 다해 집에서 명상하고 단체명상에도 참석하고 또 선에도 오려고 노력합니다. 비행기를 타고 오는 게 매우 편하긴 하지만 사실 그렇게 쉬운 건 아니지요. 그래서 나는 정말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

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신도 아실 겁니다. 그러니 원하는 것이 있으면 그냥 집에서 기도하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선 행사에 참석하게 되면 그때는 꼭 신을 알기 위해서만 갈망하십시오. 단 5일만이

\* 후기

#### 스승님의 법문 후 일어난 재미있는 일화 한 토막

선에 참석했던 한 사형이 단체명상 중 스승님의 위 법문을 듣고 자신이 맡은 주방 일을 계속하러 센터의 주방에 돌아왔을 때 청소를 하느라 주방에 남아야 했던 다른 사형이 그에게 물었다. “스승님이 오늘 하신 말씀의 요점은 뭐였어요?” 단체명상에서 돌아온 사형은 생각할 틈도 없이 대답했다. “신을 기억하라. 그러면 죽는다!”

## 다 함께 힘을 모으면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 수 있다

청하이 무상사/ 1994. 9. 14. 태국 방콕 (원문 영어)  
비디오테이프 No. 446

우리가 많은 도움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는 능력과 시간이 허락하는 한도에서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세상은 아주 넓고 고통도 엄청납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다면 아예 돕지 않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우리처럼 조금씩만 돕는다면 이 세상은 정말 천국이 되어 굶주리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린 전세계 사람들이 함께 도울 때까지 기다릴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나서야 합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도 함께한다면 더욱 좋겠지요! 다른 사람들을 돕는 건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작은 단체도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면 좀 더 큰 단체, 그리고 전세계가 함께 일한다면 정말이지 아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땐 우리에게 두려움도 없을 것이며 천국에 갈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 궁극의 법문

앤젤 가자스 사형/ 스페인 마드리드  
(원문 스페인어)

입문하기 전 나는 여러 다양한 법문을 수행했지만 법문마다 믿음성이 적었고 의심스러웠다. 결국 나는 내면의 진정한 평화를 찾아야만 안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이러한 평화에 대한 갈망은 신께 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도가 되었다.

어릴 때부터 나는 죽음과 세속적인 삶의 허무함으로 고민했었다. 가톨릭 신자였던 나는 인생의 유일한 목적은 신을 영광되게 하는 것이라고 배웠고 이 때문에 신부가 되기 위해 신학교에 입학해 공부했다. 그것만이 내가 신께 이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 해, 두 해가 지나면서 나의 제한된 두뇌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다. 하지만 나는 매우 이성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른 길을 모색하면서도 기본적으로 기독교적인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했다. 26년 동안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면서 어린이와 청소년에게서 매우 귀중한 인생의 교훈을 많이 배울 기회를 얻었지만 내 마음속의 의심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그런데 몇 년 전 마음의 평화를 필사적으로 찾고 있던 중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다. 채식을 하고 금욕적인 생활을 하면서 물질적 욕망을 줄이고 신비주의와 영성에 주의를 집중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나의 생

활 방식을 완전히 뒤바꿔야만 했다.

그러나 명상에 관한 책들을 읽은 후 신에 이르기 위해 일상생활이나 일, 가족, 친구들을 떠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이해하게 됨에 따라 나는 재가자로서 적합한 수행법을 찾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매우 비싼 명상 프로그램을 선택했다. 그러나 내가 이 방법을 시작할 때 나보다 훨씬 전부터 채식을 하고 있었던 동료는 명상법에 너무 많은 비용을 들이면 신을 찾을 수 없을 수도 있다고 충고해 주었다. 신은 돈으로는 살 수 없으니 말이다. 그래서 나는 다시 신께 기도하며 궁극의 법문을 찾게 해 달라고 청했다.

신도 나를 불쌍히 여기셨나 보다. 우연히 어떤 잡지에서 관음법문에 대한 내용을 보게 되었는데, 거기에는 청하이 스승님이 무료로 전하는 궁극의 명상 법문에 대한 내용이 실려 있었다.

나는 잡지에 나온 전화번호로 연락인과 통화를 하고 얼마 후 방편법을 배우게 되었다. 그 후로부터 내가 발견한 모든 영적인 상징들은 나를 사랑의 바다로 인도했고, 내 마음은 지혜로 가득 차게 되었다. 관음법문에 입문한 후 나는 구름 위를 날고 있는 듯한 느낌이며, 평생을 찾아 왔던 마음의 평온을 찾을 수 있었다. 그리고 내가 바로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도 마침내 느낄 수 있게 되었다.

스승님께 감사드린다.



## 깨달은 스승의 자비로운 완전한 모범

포모사 시후 장주

뉴스잡지 142호에 실린 스승님의 말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즐겁다’를 읽었을 때 스승님이 중국 본토를 처음 방문하셨던 1989년 가을이 생각났다. 스승님은 장주와 재가 제자들을 데리고 그곳 수행자들을 방문해 많은 사람들과 인연을 맺으셨다. 그 당시 스승님이 방문하신 주요 목적은 전 중국을 축복하고 그곳의 영적인 각성을 고양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샤먼에서 많은 사원을 방문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스승님의 차가 갑자기 멈춰 섰다. 모두들 무슨 일이 생겼나 하고 있는데 스승님의 시자가 다가와 물었다. “남자 바지 한 벌 주실 분, 없어요?” 당시 그 누구도 여벌의 바지를 갖고 있지 않았지만 천 사형은 주저 없이 입고 있던 바지를 벗어 시자에게 주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스승님이 한 부랑자가 길가에 누더기 차림으로 있는 것을 보시곤 그에게 음식과 바지를 주시려고 했던 것이었다.

이 일을 목격하고서 내 마음속엔 연민의 감정이 솟아올랐다. 난 속으로 ‘우리는 왜 알아차리지 못했을까?’ 하고 생각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그를 봤더라도 그냥 넘어갔을 것이다. 하지만 스승님은 신의 어린아이가 사람들의 사랑과 보살핌을 필요로 하는 것을 아셨던 것이다. 다음날 일을 보러 버스를 타고 가는 동안 나는 전날 있었던 일을 떠올리며 그 사람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하고 생각했다. 그때 버스가 모퉁이를 돌고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눈에 익은 바지를 입은 한 남자를 보게 되었다. 그는 목에 힘을 잔뜩 준 채 당당한 모습으로 성큼성큼 걸어가고 있었다. 우리는 그 모습을 보고 모두 미소를 지었고, 나는 ‘스승님께서 사랑과 아름다움의 작품을 또 하나 창작하셨구나.’ 하고 생각했다.

그후 광조우의 여관에서 아침 식사를 마친 후 스승님의 시자가 전갈을 전해 왔다. “음식을 맞은편 길거

리에 있는 거지에게 주세요.” 창문을 내다보니 맞은편에 정말 몹시 배고픈 듯한 사람이 보였다. 그에게 먹을 것을 주었을 때 나는 마치 내가 배고팠을 때 누군가 나에게 음식을 가져다준 것처럼 기뻐했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운명은 어째서 이렇게도 다를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 두 가지의 실화를 통해 나는 나에게 아직 사랑의 마음이 부족하며, 보통 자신만 돌보고 다른 사람의 요구에 대해선 잊는다는 것을 자각했다. 이에 나는 다른 사람의 요구를 좀더 주의 깊게 관찰하기 시작했다. 한번은 내가 중국에 관음사자로 파견되었을 때 있었던 일이다. 허베이 성의 교외를 운전하면서 길을 찾고 있던 중 작은 다리를 지나다가 다리 옆에 있는 한 남자가 보였다. 그는 두 팔에 장애가 있었고 가슴에는 도움을 간청하는 팻말이 달려 있었다. 지난날 스승님께서 여러 차례에 걸쳐 몸소 보여 주신 본보기를 통해 배운 나는 자연스레 그 남자에게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이 일어났다. 그후 가려던 길도 찾게 되어 뭐라 말할 수 없이 기뻐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즐겁다’에서 스승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다른 사람을 도울 때 내가 그 사람이 된 것처럼 정말 행복합니다. 누구에게 주든 그 사람이 내가 된 것 같지요. 그래서 그 사람과 나, 둘 다 행복하지만 내가 상대방보다 더 행복합니다. 나는 그의 행복을 느낄 뿐 아니라 내가 그에게 행복을 주었다는 것도 알기 때문에 내가 더 행복합니다. 그래서 ‘주는 사람이 받는 사람보다 행복하다.’고들 하는 겁니다.” 나는 스승님이 몸소 보여 주신 모범을 통해 배운 그 완전한 품성들이 이제 내 가슴 깊이 각인되어 있음을 확실히 느끼고 있다. 이 모든 것에 감사하고, 신과 깨달은 스승의 사랑에 대해 감사하고 또 감사할 따름이다.



## 농부와 뱀



청하이 무상사/ 1992. 7. 12. 포모사 시후 (원문 중국어)  
비디오테이프 No. 268

이 이야기는 ‘농부와 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한 농부가 직접 키운 꽃과 농작물을 갖고 매일 성문에 가서 다 팔고 나면 집에 돌아오곤 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아주 일찍 집을 나섰는데 성문에 도착하니 너무 일러서 성문이 아직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누워서 한숨 자기로 했지요. 그가 나중에 잠에서 깨어 보니 농작물이 담겼던 바구니는 텅텅 비어 있었고 대신 금화 한 닢이 놓여 있었습니다. 바구니의 물건이 사라지긴 했지만 그 금화는 그보다 훨씬 값나가는 것이어서 그는 기분이 매우 좋았습니다. 누군가가 물건을 다 가져간 후 값을 치른 것이라고 생각한 농부는 금화를 챙겨 기분 좋게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날에도 물건을 팔러 나온 농부는 이번에도 너무 일찍 도착해서 성문 앞에서 다시 잠을 잤습니다. 그러자 똑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농부가 가져온 물건이 다 사라지고 금화 한 닢이 또 들어있었던 거죠! 그 당시엔 금이 아주 귀했기 때문에 금화 한 닢은 그 농부의 농작물보다 값어치가 몇 배나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농부의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그렇게 많은 금화를 얻어 오는 게냐? 돈이 어디서 났지?” 농부는 그동안 있었던 사정을 말씀드렸습니다. 얘기를 듣고 난 농부의 아버지는 ‘하루 날 잡아서 아들의 뒤를 밟아 봐야겠군. 대체 누가 농작물을 먹고 바구니에 금화를 놓고

가는지 한번 봐야겠어.’ 하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농부가 물건을 팔러 나가자 그 아버지도 몰래 그 뒤를 밟았습니다. 농부가 성문 앞에서 잠이 들자 뱀 한 마리가 바구니로 기어 들어가 농작물을 먹고는 값이라도 치르는 듯 금화 한 닢을 빈 바구니에 뱉어 내곤 기어 갔습니다. 이것을 본 농부의 아버지는 ‘저 뱀을 죽이면 뱃속에 들어 있는 금화는 모두 내 차지겠군!’ 하고 생각하곤 돌멩이를 집어 들어 뱀을 쳐서 두 동강을 냈습니다.

그때 뱀의 머리와 몸통은 이미 굴속으로 들어가 있었고 꼬리만 바깥에 나와 있었어요. 아버지는 굴속에 보물이 아주 많은 것



이라고 생각해서 아들에게 굴속에 손을 넣어 꺼내라고 시켰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게 농부는 손을 굴속에 집어넣었다가 오히려 뱀에게 물려 죽고 말았습니다! 뱀은 몸이 두 동강이 났어도 물 수가 있어요! 이런 상황은 나도 아주 잘 압니다. 어렸을 때 그렇게 물린 적이 있거든요. 그때 난 사람들에게 맞아서 납작해진 지네를 보았는데, 머리는 납작하지 않았지만 죽은 걸로 여기곤 진짜 죽었는지 발로 한번 건드렸어요. 그랬더니 그게 나를 딱 물어서 몇 날 며칠을 울었습니다. (대중 웃음) 정말 바보 같죠! 그러니 명심하세요! 죽은 것처럼 보여도 지네를 놀리면 안 됩니다. 때론 죽은 척하는 것일 뿐 진짜 죽은 게 아닐 수도 있으니까요.

이 이야기 속의 뱀도 그랬나 봅니다. 머리는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농부를 물었던 거지요. 결국 농부는 죽고 말았습니다. 아들이 죽는 걸 본 농부의 아버지는 아들의 시체 옆에서 가슴이 찢어질 듯 통곡을 하며 뱀에게 물었습니다. “이놈의 뱀! 왜 내 아들을 죽였어? 왜 내 아들을 물어 죽인 것이냐!” 그러자 그 뱀이 되물었습니다. “그럼, 당신은 왜 내 등을 돌로 쳐서 두 동강을 냈나요? 우리 사이엔 아무 원한도 없었잖아요? 난 당신에게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고 해를 끼치지도 않았어

요. 당신이 조금만 더 인내심이 있었다면 여기 있는 보물을 모두 줬을 겁니다. 하지만 당신이 나를 찢기 때문에 나도 당신 아들을 물어 죽인 거예요. 내가 당신을 물어 죽였다면 그렇게 상심하지 않았겠지요. 그래서 난 당신이 평생 가슴 아프게 살라고 아들을 죽인 거예요.” 정말 이 뱀의 지혜는 사악하기 그지없지요! 자기를 죽이려고 한 노인을 죽이는 대신 아들을 죽여서 노인을 평생 고통스럽게 만들다니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배울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때로 내게 묻습니다. “스승님은 왜 저희를 5세계로 바로 데려가지 않으시나요? 그러면 저희는 곧바로 고통에서 벗어나 바로 성불할 텐데, 그게 더 낫지 않나요? 뭐 하러 매일 두 시간 반씩 명상하고 오계를 지키며 채식을 하라고 하시나요? 이러면 너무 더디잖아요?” 사실 더딘 것도 아닙니다! 그해야만 여러분은 소화할 수 있으니까요. 만약 내가 한꺼번에 너무 많은 것을 주면 여러분은 배불리 죽을 겁니다! 너무 욕심이 많은 탓에 결국에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되지요.

우리 수행자들은 아무런 장애가 없기도 해요. 자신이 왜 이런 수행의 길을 가는지 잘 알고 있고 매일 부지런히 명상하고 의심하는 마음도 없고 스스로 장애를

만들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마야는 우리를 ‘물지’ 못하면 우리 친척을 괴롭힙니다. 우리 친척을 이용해 우리를 ‘물어서’ 상처를 입히는 거지요. 석가모니불도 일찍이 말하길 “마구니가 부처를 공격하지 못하면 그 제자를 공격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때로 제자들이 많은 어려움에 봉착하면 그 스승 또한 말려들어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제자들의 위험을 스승이 수수방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에게 무슨 일이 생기는 걸 보면 한쪽에서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없는 것처럼요. 그 결과 부모도 영향을 받게 되지요.

우리는 수행을 하면서 때로 친척이나 친구와의 마찰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모두들 그런 경험 있을 겁니다. 참을 수 있으면 참고, 설명할 수 있으면 설명하고, 무시할 수 있으면 무시하고, 다정히 대할 수 있으면 다정히 대하십시오. 상황에 따라 대처하세요. 각자 상황이 다르니까 나 역시 여러분에게 획일적으로 예를 들어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지혜를 써서 최대한 만족스런 결과를 얻도록 원만히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지나치게 굽히고 들어가 자신의 수행을 희생해서는 안 됩니다.



## 캐나다 퀘벡 소식

### 홍수 이재민에게 기쁨과 행복을

캐나다 퀘벡은 최근 갑작스런 홍수로 극심한 피해를 입게 되었다. 이에 자비로운 스승님께서 즉시 동수들에게 피해 지역에 대한 구호 활동을 시작하라고 지시 하셨다.

몬트리올 동수들은 2003년 8월 13일 저녁 구호물자를 구매, 포장하여 임대한 화물차 두 대에 나눠 싣고 퀘벡 각 지역의 이재민에게 물품을 전달했다.

다음날 오전 구호 팀은 몬트리올 센터를 출발해 명단에 오른 첫 번째 행선지인 워윅으로 향했다. 동수들은 워윅 시청에서 시장과 측근을 만나 스승님을 소개했다. 그들은 1988년 퀘벡에 얼음 폭풍 재난이 닥쳤을 당시 스승님께서 선뜻 미화 5만 불을 기증하셨던 일을 떠올렸다. (뉴스잡지 91호 참고) 시장은 스승님의 자비로운 활동에 감동 깊었다면서 지금처럼 도움이 절실한 시기에 이재민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가져다주신 스승님께 감사드렸다.

이재민들이 시청에 도착하자 구호 팀은 스승님께서 그들이 처한 상황에 깊이 염려하고 계시며



스승님의 사랑과 관심 어린 선물을 받은 워윅의 이재민들이 기쁜 미소를 띠고 있다. (오른쪽에서 세 번째가 워윅 시장)

어려움을 겪고 있을 그들에게 스승님의 사랑과 관심, 선물을 전하라고 하셨다는 것을 알렸다. 멀리서 보내온 정성 어린 지원에 이재민들은 기쁨을 금치 못했으며, 특히 스승님의 재정적인 도움에 감사해했다.

이들 이재민 중에는 부양 자녀가 많거나 가구, 옷 등을 홍수로 잃은 가구들이 있었다. 이재민들은 학교나 직장에 갈 때 입을 옷이나 생겼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 단체에서 그들에게 꼭 맞는 신발과 청바지, 조끼, 내의, 그리고 영양 식품까지 대량으로 가져온 것을 보곤 깜짝 놀랐다. 이 밖에도 두 아이와 쌍둥이 유아가 있는 한 가정의 경

우엔 유아복과 유아용 식품, 유모차를 받기도 했다. 물품을 나눠주는 동안 우리는 사람들의 웃는 얼굴을 통해 그 기쁨을 느낄 수 있었으며, 시청에는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넘쳐흘렀다.

워윅 방문을 마친 구호 팀은 체스터빌에 도착해 시장 대변인인 리스 코트 씨의 영접을 받았다. 이미 도착해 있던 이재민들은 우리의 발빠른 구호 활동에 매우 감동했다. 그 전주(일주일 전)에 제습기를 요청한 가구들은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받게 되리라곤 생각도 못했다고 얘기했으며, 동수들이 건네준 위로금 봉투를 열어 보고는 얼굴 가득 놀라움의 미소를 지었다. 몬트리올 센터는 체스터빌의 장 폴 뽀와중 부인에게서 스승님의 시기 적절한 선물에 대해 감사하다는 편지를 받았다. 이 편지를 통해 뽀와중 여사는 재정적인 지원에 대해 특별히 고마워했다. (다음의 감사 편지 참고)

시장 측근들 중 일부는 스승님의 자선 활동에 깊은 관심을 표명하며 많은 질문을 하기도 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승님을 소개하는



한편 견본책자와 함께 스승님의 자선 활동을 담은 비디오 ‘사랑의 길을 걷다’를 선물로 주었다.



위로금과 필수품을 전해 받은 체스터빌 지역 수재민들.

구호 팀의 마지막 활동지는 텅윅이었다. 소박하고 외향적인 에밀 시몽뉴 시장 부부와 비서들은 우리 단체를 많이 지원해 주었다. 시민들이 처한 상황을 매체에 알리고 최선을 다해 외부의 지원을 요청했던 시몽뉴 시장은 이 일들로 인해서 홍수에 관한 언론 보도에 여러 번 거론된 바 있다. 시몽뉴

시장은 개인 사무실에서 우리 구호 팀과 홍수 이재민들을 접견했으며, 동수들은 구호 활동에 활기를 더해준 그와 직원들의 신속한 도움에 감사를 표했다.

이어서 동수들은 이재민들에게 스승님을 소개하고 이번 방문의 목적을 설명했다. 많은 이들이 감동을 받은 가운데 한 남성은 감동스런 마음을 억누르지 못해 수시로 자리를 비우기도 했다. 구호 팀은 기본적인 생활 필수품과 함께 스승



텅윅 시장(오른쪽에서 세 번째)이 시민들을 대신해 스승님의 자비로운 지원에 깊은 감사와 안부를 전하다.

님을 대신해 위로금도 전달했다. 이재민들은 떠나기 전 구호 팀원들과 악수를 나누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는데, 그 중 한 남자는 여전히 감동에 겨워 말문을 열지 못한 채 구호 팀원을 끌어안기도 했다. 우리는 말없는 가운데 스승님의 보살핌과 사랑이 사람들의 내면 깊은 곳에 닿아 그들의 영혼을 감동시켰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구호 팀은 남아서 시몽뉴 시장과 대화를 나누며 세상 사람들의 고통을 덜기 위해 아낌없이 희생하시는 스승님의 활동을 알렸다.

구호 물품 배분이 끝났을 때 시장 측근들은 동수들에게 도움을 요청한 가구들이 더 있다고 알려 왔다. 이에 우리는 그 다음주에 다시 한 번 구호 활동에 나서기로 계획했다.

## 2차 구호 활동

2003년 8월 22일 추가 지원 요청에 따라 체스터빌과 텅윅 지역에 스승님의 사랑과 관심을 전하기 위해 몬트리올 센터를 출발한 구호 팀은 오후 4시 30분 체스터빌 시청에 도착했다. 도움이 절실하고 아이가 많은 세대들을 포함한 수혜

가구들은 스승님의 시기 적절한 재정적 지원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시장 대변인은 이재민을 대신해 스승님께 고마움을 전하며 우리가 지난번 방문 때 두고 온 자료를 통해 스승님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녀는 스승

님이 고상한 의상을 디자인하시고 전세계적인 구호 기금을 자체적으로 부담하고 계시다는 걸 알게 되었다고 하면서 스승님의 아름다움과 뛰어난 재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외 『누벨 유니온』지는 스승님의 자애로운 활동이 퀘벡



지역 주민들을 결속시켰다고 보도했다.

팅웁 시를 재방문했을 때 보여준 시몽뉴 시장 부부의 헌신적인 지원은 매우 인상 깊었다. 이 부부는 이재민들에게 우리 구호 팀의 도착을 알리고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 기꺼이 지역 사회를 돕고

자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동수들은 홍수로 모든 재산을 잃고 절망에 빠져 있던 한 젊은 부부에게 위로를 해주는 한편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우리가 떠나기 전 시몽뉴 시장은 스승님께 안부와 감사의 말씀을

을 전하면서 9월 6일 텃웁 시 홍수 재난에 도움을 주었던 여러 단체들에 감사를 전하는 공로상 수여식 및 모금 파티가 있을 예정이라고 알려 주었다. 그는 스승님께 깊은 감사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단체도 이 특별한 날에 참석해 달라고 초대했다.

## 팅웁의 특별한 하루

9월 6일 저녁 8시 30분 텃웁 주민회관에 도착하자 시몽뉴 시장 부부가 입구에서 우리를 반가이 맞아 주었다. 시장은 우리를 위해 테이블 두 개를 배정해 주었다.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시장과 비서관, 시민들은 주인으로서 내빈들에게 세심한 배려와 극진한 대접을 베풀었다. 스승님과 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는 홍수 재해를 도와준 다른 찬조 단체들과 함께 감사 대상자 명단에 올려져 있었다. 텃웁 주민들은 선량하고 동화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서로 돕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수해 기간 동안에도 쓰던 가구와 난로 등 각종 물품을 경매에 내놓고 그 수익금으로 이재민들을 도왔다.

행사 도중 한 주민이 우리에게 다가와 최근 홍수가 났을 때 스승님이 텃웁 시를 도와주신 분이 아니냐고 물었다. 우리가 텃웁 주민들에 대한 스승님의 사랑과 관심을 얘기하자 그녀는 수재민들에게 도움을 주신 스승님과 협회에 진심으로 감사해했다.

또한 시몽뉴 시장은 동수들, 직원들과 담소하던 중에 스승님의 자

비심과 자선 활동을 높이 평가하면서 언제든 미국으로 가서 스승님을 뵙고 직접 감사드리고 싶다고 얘기했다. (시몽뉴 시장과의 인터뷰는 켄 TV '예술과 영상' 프로그램을 통해 온라인으로 방영될 예정이다.)

퀘벡 동수들은 이번 재난 구호 활동에서 끊임없는 사랑과 지원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함께 일하며 성장할 기회를 통해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당신의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신 스승님께 감사드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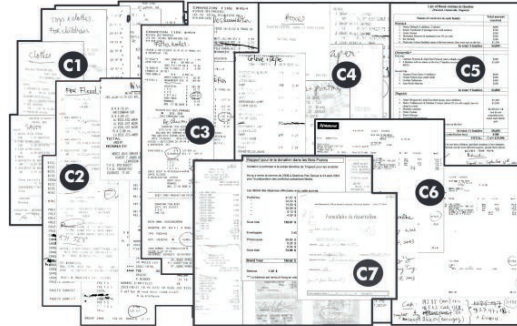
## 퀘벡 수재민들에 대한 칭하이 무상사의 재난 구호 활동 지출 내역

(단위: 캐나다 달러)

항 목	금 액	영수증
옷, 장난감, 유아용품	2,108.38	C1
식품(시리얼, 파스타, 저장 캔 식품, 수프, 사탕, 과자)	2,065.87	C2
제습기, 식수 공급 장치, 음용수 필터, 전기 주전자	2,715.75	C3
장갑, 수건, 세제, 비누	1,546.31	C4
수재민 위로금 및 도시 기금 전달	15,500.00	C5
교통비(화물차 임대료, 휘발유)	1,113.97	C6
잡비(종이 상자, 사진 인화, 서류철, 필름 등)	550.00	C7
총 계	CA\$25,600.28 (미화 약 18,727.34달러)	



감사 편지



(원문 붙어)

2003년 8월 15일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귀중

이번에 체스터빌 수재민들에게 관심을 보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자 이 편지를 씁니다.

저희 가족과 저는 여러분이 보내 주신 제습기와 건강 식품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현금 200달러의 재정적인 도움 덕분에 저희는 급한 경비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처럼 다른 사람들의 안녕에 관심을 갖고 생각해 주시는 분들의 아낌없는 공헌과 마음 씬씀이에 대해서는 아무리 많이 들어도 좋을 것입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항상 희망을 갖고 여러분의 일을 계속해 나가시길 기도드립니다. 이 뒤죽박죽인 세상에도 여러분처럼 선량하신 분들이 계셨군요!



퀘벡 체스터빌  
장 폴 뵈와중



캐나다 체스터빌 『누벨 유니온』 8월 15일자 (원문 프랑스어)

## 체스터빌의 단합을 이끈 아름다운 활동

『누벨 유니온』 모니크 지루 기자 보도

최근 체스터빌과 텅윅, 워윅의 이재민들을 돕기 위한 미국인들의 구호의 손길이 있었다. 이들과 체스터빌 이재민과의 만남이 8월 14일 목요일 오후 리즈 코테 사무국장의 사무실에서 이루어졌다.



각 세대마다 현금 200달러와 제습기, 과자, 생필품이 든 상자를 전해 받았다.



리즈 코테 체스터빌 사무국장(왼쪽에서 세 번째)을 사이에 두고 응이아 응우엔, 마리 이본느 드질레, 그리고 수재민 다섯 사람이 함께 포즈를 취하다.

체스터빌의 다섯 가구는 칭하이 무상사의 박애주의적인 사랑의 도움을 받게 되었다. 칭하이 무상

사는 어울락 태생으로, 칭하이는 ‘청정대해’를 뜻한다.

“우리 영혼의 스승이신 칭하이 스승님은 거주지인 플로리다에서 뉴스를 통해 부아 프랑 지역에 닥친 재난을 아시게 되었습니다. 몬트리올과 퀘벡, 빅토리아빌에 살고 있는 우리 12명의 제자들은 이재민을 도우라는 스승님의 요청에 따라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스승님은 정부의 구호 작업을 기다리는 동안 우선 이재민들을 위로하고 상황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셨습니다.” 몬트리올의 관음 수행자인 위그 리바르씨의 설명이다.

다른 몬트리올 주민인 응이아 응우엔 양은 무상사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함께 나누는 다른 사람 돕기 활동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우리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용기를 불어넣고 그들의 삶을 보다 편안하게 해주어야 합니다.”

이번 구호 활동의 연락 책임자인 홍 응우엔 씨는 다섯 가구에 각각 현금 200달러와 제습기, 아이들을 위한 과자와 기초 생필품이 든 꾸러미를 전달했다.

칭하이 무상사는 예술 작품 및 고급 의상을 디자인, 판매하여 그 수익금으로 전세계의 빈민과 이재민을 돕고 있다. 1998년 얼음 폭풍 때에도 퀘벡에 7만 불을 기부한 바 있기 때문에 퀘벡으로서는 이번에 두 번째 도움을 받게 되었다.

뜻밖의 도움에 놀란 체스터빌 이재민들은 생면부지의 친구들이 보여 준 아름다운 연대 활동에 한없는 고마움을 표했다.





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의 퀘벡 수재민 구호 활동을 보도한 캐나다 주간지 『Thoi Moi』(2003년 9월 10일자)와 월간지 『Tham My』(9월호 72페이지). (원문 어울락어)

##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 소식

### 재해의 잣더미에서 수많은 생명을 구한 스승님의 사랑

2003년 여름,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 지역은 사상 유례없는 가뭄을 겪었다. 몇 달 동안 비도 내리지 않은 채 고온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었다. 게다가 담배꽂초를 마구 버린 탓에 팔월 한 달 동안 300여 건의 산불이 발생하기도 했다. 밴쿠버 북부의 아름다운 루이스 크릭 지역은 대형 제재소 한 곳을 포함해 건물 65채가 완전 소진되었고 킬로나(Kelowna)에서는 238가구가 불탔으며 바리에르 시도 많은 집들이 불에 타고 매연으로 피해를 입었다. 자비로운 스승



님은 이 소식을 접하신 후 미화 5만 달러를 기부하시며 동수들에게 피해가 심각하면서도 구호 단체의 손길이 닿지 않는 사람들에게 위안을 가져다주도록 지시하셨다.

캐나다 정부는 재해 지역에 긴

급 상황을 선포하고 많은 주민들을 대피시켰다. 이들 대부분은 정부와 지역 자선 단체에서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1만여 명이 임시적으로 캄루스 시 부근으로 이동했고 대부분이 여관에 흩어져 묵고 있는데 적십자사와 지역 정부 기관에서 숙박비와 의류비를 지원하고 있다.

상황을 파악한 동수들은 밴쿠버로 돌아와 대형 트럭 1대를 임대해 구호물자를 가득 실은 후 캄루스 시로 향했다. 거기서 여관에 나누어 투숙하고 있는 대피자들



사랑의 실천

청하이 무상사 뉴스잡지 146호

을 만났는데, 식품과 음료수, 과일, 견본책자가 든 위문품 꾸러미를 받은 사람들은 모두 스승님의 사랑이 담긴 선물에 매우 기뻐했다. 이어서 우리 작업 팀은 집이 불탔어도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처럼 도움이 절실한 사람들을 찾아 나섰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선입견을 버리고 스승님의 인도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런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이들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발견한 한 여성은 겁에 질린 모습에다 불안하고 불행해 보였다. 그녀가 살던 집은 원래 언니 집이라서 이번 화재로 집을 잃었어도 정부의 지원 대상 조건에서 제외되었다. 그래서 정부의 여관 숙박비 지원을 받지 못한 데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탓에 숙박비를 낼 처지가 못 되었다. 동수들은 그녀와 가족들이 이 어려운 시기를 잘 넘길 수 있도록 전에 아주 싼 가격에 구입해 두었던 작은 트레일러를 전달했다. 선물을 받은 그녀는 펄 듯이 기뻐하며 스승님의 사랑에 깊이



사진 1

이 감사하면서 정말 기적 같다고 얘기했다! (사진 1)

그후 작업 팀은 킬로나 적십자사를 방문해 이재민들을 돕고 있는 적십자사 측에 스승님을 대신해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요긴한 일에 쓰도록 성금을 전달했다. 적십자사 대표들이 스승님의 사랑과 자비에 감동하고 기뻐했음은 물론이다. (사진 2)



사진 2

구호 팀은 피해 지역 주민들 대다수가 애완동물을 키우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동물 학대 방지 협회(SPCA)에서는 동물 양육 프로그램을 진행해 캄пус 지부에서 소, 말 등을 비롯해 재해를 입은 많은 동물들을 돌보고 있었다. SPCA는 동물들에게 먹이를 제공하고 주인이 없는 동물에게는 잠자리와 약품을 제공하며 애정 어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는 SPCA를 방문했을 때 동물 친구들에 대한 이들의 헌신과 사랑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았다. 이에 우리가 성금을 전달하자 그들도 매우 고마워했다. (사진 3)

킬로나를 떠난 구호 팀은 바리에르 시의 루이스 크릭 지역으로



사진 3

돌아와 이재민들에게 가장 시급한 물건이 무엇인지를 파악했다. 대부분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현금이었고 아이들 취학 문제를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금과 함께 취학 아동이 있는 가정에는 학용품을 구매해 주었다.

여러 가구를 방문했을 때 우리의 주의를 끈 한 가장(家長)은 매우 인자하고 선량해 보였지만 깊은 절망에 빠져 있었다. 그후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그가 우리에게 전화를 걸어 왔다. 일을 다시 시작하기 위해 차가 필요한데, 도움을 줄 만한 단체는 모두 알아봤지만 나서는 곳이 없다는 내용이였다. 스승님의 끝없는 은총 덕분에 동수들은 아주 저렴한 가격에 트럭 한 대를 구입해 그에게 전해줄 수 있었다. 그는 무한한 감사의 말과 함께 “스승님께서 저의 성실한 마음을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이 차는 신이 주신 겁니다. 지금까지 저는 평생 동안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일터로 향하며 가족을 돌봐 왔습니다. 이제 다시 가족들을 돌볼 수 있게 됐으니 일주

일 내내 일해도 기쁠 겁니다. 다  
른 구호 단체에선 스승님처럼 성심  
으로 다른 이를 돌봐 주지 않습  
니다. 스승님은 사람들의 영혼을  
돌보실 뿐 아니라 물질적인 필요성  
도 헤아리고 마음까지 치유하길 바  
라시는군요.”라고 얘기했다.

구호 팀은 자동차 한 대와 트  
레일러 세 채를 구입해 네 가구  
에 전달함으로써 그들이 교통 및  
숙박 문제를 해결하고 일상생활  
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움  
을 주었다.

집이 불탔어도 보험에 들어  
있지 않았던 한 노부부는 매일 기  
도를 하면서 현재 임시로 머물고  
있는 작은 트레일러에서 한겨울  
을 추위와 불편함 속에 지낼 생  
각에 걱정하고 있었다. 동수들이  
겨울을 보낼 곳을 임대해 주자 노  
인들은 얼굴 가득 기뻐하는 모습

을 띠었다. 바깥 노인은 “저는 매  
일 성경을 읽고 기도도 합니다. 이  
제 하느님께서 도움을 보내 주시  
는군요. 아무도 이런 도움을 주  
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  
러분의 스승님이 신이라는 것을 믿  
습니다.” 하고 말하기도 했다. (사  
진 4)



사진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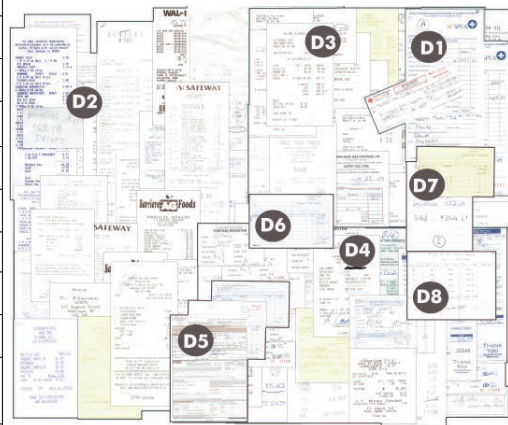
집이 전소한 한 가정은 벽돌 조  
각 사이를 돌아다니며 낡은 물건이 없나 찾고 있었을 때 성  
경의 한 페이지만을 찾아냈는데 거  
기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

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라고 씌어 있었다. 그 말대로 그  
들은 정말 위안을 받게 되었다!  
이 이재민들은 스승님의 물질적 도  
움뿐 아니라 더욱 중요한 스승님  
의 무한한 사랑으로 큰 축복을 받  
았던 것이다. 루이스 크릭 주민들  
은 일찍이 한번도 만난 적이 없  
는 여성 ‘칭하이 무상사’의 자비  
와 사랑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다.  
어떤 이들은 “이건 기적이예요!”  
라고 했으며 한 남성은 “모든 희망  
이 사라졌을 때 여러분의 스승님  
이 우리에게 인생을 다시 시작할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이제 저는  
스승님이 우리를 돌봐 주셨듯이 저  
또한 남을 돌봐야 한다는 것을 배  
웠습니다.”라고 얘기했다. 스승님,  
모든 중생들에 대한 당신의 무한  
한 사랑과 세심한 배려에 감사드  
립니다.

#### 캐나다 퀘벡 화재 이재민에 대한 칭하이 무상사의 원조와 구호 활동 지출 내역

(단위: 캐나다 달러)

항 목	금액	영수증
퀘벡 적십자사와 SPCA(동물 학대 방지 협회)에 성금 전달	10,000	D1
이재민에 전달한 식품 및 선물	2,999	D2
교통비(휘발유 및 톨게이트 비용)	472	D3
구조 팀원의 일상 잡비	1,062	D4
세 가구에 트레일러 제공	11,000	D5
이재민 1가구에 트럭 제공	4,000	D6
이재민 1가구에 자동차 제공	3,924	D7
화재 이재민에게 선물 전달	35,000	D8
총계	CA\$68,457 (미화 약 50,151.50달러)	





## 인도 소식

### 스승님의 사랑이 가뭄 피해를 입은 인도 북서 지방에 번영과 행복을 가져다준다

지난 몇 년 동안 가뭄이 계속 되어 왔던 인도 북서 지방은 올해 그 상황이 더 악화되었다. 스승님의 지시를 받고 여러 나라에서 온 동수들은 올해 4월 말 인도에 도착해 구호물자를 분배하고 6월에는 라자스탄 바메르 지역 주민들과 함께 물탱크 및 우물 보강 공사를 진행했다. (뉴스잡지 144호 참조) 지역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동수들은 7월에 다시 한 번 이곳을 방문해 농작물 파종용 종자를 대량 배분했다.

기쁘게도 동수들이 도착한 후 하늘에서 단비가 쏟아졌다. 검은 구름이 짙게 모여들고 점점 어두워지더니 번개가 번쩍이고 하늘을 밝히면서 이어 천둥소리가 하늘을 울렸다. 순식간에 떨어진 빗방울은 며칠 동안 계속되어 이 지역의 죽어 가던 들판에 생기와 활력을 가져왔다. 지역 주민들은 4년에 걸친 지독한 가뭄 이후 숲과 나무들이 처음으로 초록으로 변하는 것을 보았으며, 비바람과 햇볕에 거칠어진 농부들의 얼굴은 행



복으로 환하게 빛났다.

단비가 메마른 땅을 적시는 동안 동수들은 즉시 바메르와 자이살메르 지방의 가난한 농부들을 위해 종자를 구매했다. 이곳 지역 단체인 MMBA의 협조 속에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소속 17명의 회원들은 농부들에게 종자를 신속하게 나누어 주

었다. 농부들이 제때 파종할 수 있도록 동수들은 사흘 동안 쉬 없이 움직이며 종자를 배분했다.

동수들은 촌락 깊숙이 들어가거나 마을 분배 센터에 남아 배분했는데, 3천 명 이상의 농부들이 기장, 녹두, 나방콩, 클러스터콩 등의 종자를 받았다. 농부들은 감사하게 종자를 받았으며 전시된 스승님의 법상에 공손히 절을 했다. 동수들은 종자 배분 외에 영혼의 감로수인 스승님의 견본책자도 함께 나눠 주었다.

며칠 후 이 마을들을 방문한 동수들은 농민들이 종자를 받아 다음날 파종했다는 것을 알았다. 몇몇 마을에서는 벌써 싹이 올라오





기 시작했고, 그 중 한 곳의 모종은 벌써 5cm에서 10cm 정도 자라 있었다!

종자 배분 활동 전후로 심 없이 내린 비는 싹을 잘 틔우고 들판을 적시는 한편 우물과 물탱크까지도 가득 채웠다. 이로써 마을에서는 3년 동안 쓸 수 있는 용수를 비축하게 되었다. 지역 주민들은 이에 스승님의 시기 적절한 선물에 큰 감사를 드렸다.



#### 인도 북서부 지역에 대한 칭하이 무상사의 농사용 종자 및 견본책자 기증 내역

(단위: 루피)

항 목	금 액	영수증
종자 구매(바메르 지역)	1,180,170.00	B1 & B2
종자 구매(자이살메르 지역)	115,798.00	B3
운송비	18,410.00	NIL
종자 포장용 비닐	2,890.00	NIL
현수막 제작	2,000.00	NIL
견본책자	48,000.00	B4
총계	1,367,268.00 (미화 약 29,983.95달러)	



#### 대한민국 소식

### 대구 지하철 사고로 공무원 부상을 당한 소방관들에게 스승님의 사랑을 전하다

2003년 2월 18일 대한민국 대구에서 발생한 지하철 참사를 아신 자비로운 스승님은 미화 3만 달러를 희생자들에게 기부하셨다. 한 국가 동수들은 스승님의 크나큰 사랑에 깊은 감동을 받고 이 선물을 전하고자 대구시 적십자사와 희생자 대책 위원회와 연락을 취했으나 국가에서 이미 미화 6,000만 달러



## 사랑의 실천

청하이 무상사 뉴스잡지 146호



스승님의 자비로운 기부에 감동을 받은 대구시 소방본부는 스승님의 헌신적인 사랑을 전해 받는 특별한 기념식을 가졌다.



자비를 베푸는 스승님의 빛나는 모범은 이번 일로 감동을 받은 모두에게 큰 힘이 되었다.

를 책정했고 또 재난 발생 후 6개월이 지난 후라서 현재로선 금전적인 지원이 필요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하지만 스승님께서도 우라고 하셨을 때는 어떤 뜻이 있음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스승님의 축복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으로 확신했다.



조사를 해본 결과 구호 작업 도중 일부 소방관들이 부상을 당해 현재 치료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헌신적인 공무원들은 평소 대중을 위해 봉사하면서 봉급 외의 별도의 보수도 바라지 않는다. 하지만 스승님의 기부가 무조건적인 사랑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고는 마음을 열고 선물을 받아들였다.

이런 스승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감동을 받은 김신동 소방서장은 7월 26일 대구시 소방본부 강당에서 특별히 기념식을 거행해 위로금과 침구 세트, 스승님의 출판물로 된 선물을 받았다. 이 선물들은 부상당한 소방관들이 하루속히 기운을 되찾고 건강이 회복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상자에 곱게 포장되었다. 사랑과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동수들은 행사가 끝난 후 채식 라면과 무알코올 맥주를 모두와 함께 즐

겼다.

행사를 진행하는 동안 우리는 대중에 대한 사심 없는 봉사와 공헌을 기리는 '인류에 대한 헌신적인 봉사에 대한 감사 편지'를 각 소방관들에게 전달했다. 한국 소방관들은 대중에게 헌신적으로 봉사하지만 공무상 부상을 입었을 경우 별도의 보상을 받지 못한다. 스승님의 이번 사랑의 기부와 인정을 전하는 행사는 그들의 가슴을 열어 주고 우리에게 스승님의 사랑을 전하는 기회였다. 이 특별한 행사로 인해 얻게 된 또 하나의 소득은, 이번 활동을 통해 앞으로 이와 비슷한 상황에서 소방관들을 돕는 재난 구호 팀을 발족하기로 한 것이다. 자비를 베푸는 스승님의 빛나는 모범은 이번 일로 감동을 받은 모두에게 많은 일깨움을 전해 주었다.



행사가 끝난 후 채식 다과를 제공해 함께 즐겼다.

2003년 7월 28일자 『영남일보』

(원문 한국어)

# 지하철 참사

## 부상 공무원 위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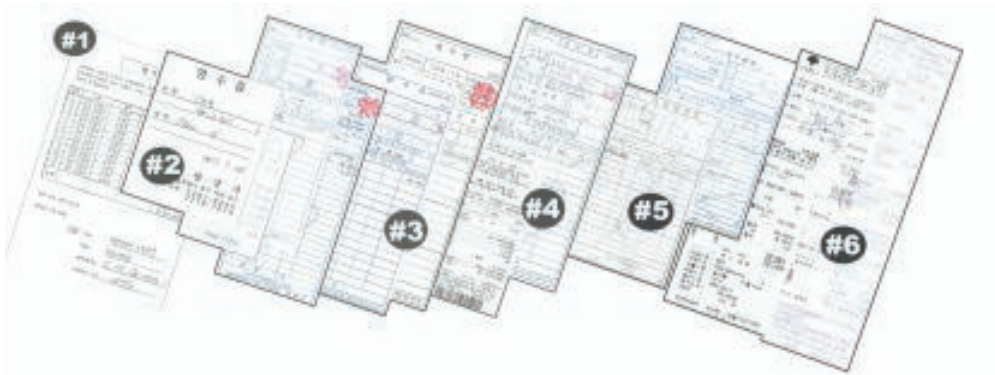
사단법인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임원들은 26일 대구 소방본부를 찾아 지난 2월 지하철 참사 당시 부상당한 소방 공무원 12명에게 격려금과 위문품을 전달했다.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는 참선, 요가를 하면서 구호 등 사랑을 실천하는 국제단체이다.



대구 지하철 참사로 부상당한 소방관들에 대한 칭하이 무상사의 지원 지출 내역

(단위: 원)

항 목	금 액	영수증
소방관 12명에게 위로금 전달	30,500,000	#1
선물: 침구 세트, 음료, 후식, 초콜릿, 과자, 꽃	1,031,800	#2, #5, #6
포장비	21,000	#3
사무용품	21,000	#4
총계	31,573,800(미화 약 28,700달러)	





## 인류를 위한 헌신적인 봉사에 대한 감사의 글

소방관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구 지하철 사건 당시 이현석 소방관께서 보여 주신 용감한 구조 활동과 희생정신에 진심 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사단법인 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는 전세계 약 70여 국가에 명상 센터를 두고 있는 국제 협회로서, 내면의 빛과 소리의 명상법인 '관음법문'을 수행하면서 전세계적으로 활발한 사회봉사를 실천하고 있는 국제적인 단체입니다.

(중략)

인도주의 정신에 따라 저희는 지진, 홍수 등 자연 재해와 기아, 빈곤 등 고통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무조건적인 지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구 지하철 참사 발생 직후 한국 지부에서는 소정의 성금을 모아 보낸 바 있습니다만, 얼마 전 뒤늦게 이 소식을 접한 청하이 무상사와 국제협회 본부로부터 추가적인 구호 기금을 전달받았습니다. 이에 대구 참사의 피해자 중 저희의 작은 도움이나마 필요한 분이 계신지 알아본 결과, 귀하께서 헌신적인 구조 활동을 펼치다 부상을 당하여 아직도 치료를 받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건씩 일어나는 많은 사건 사고 속에서, 우리는 앞일을 예측할 수 없는 사고의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위험에 뛰어들어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시민의 생명을 구하는 소방관들의 활동은, 진실로 자신을 버리고 남을 이롭게 하는 인도주의의 귀감으로 전세계인의 존경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참사를 당한 다른 희생자들의 고통에 가려져 귀하의 숭고한 용기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표현이 다소 충분치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 기회를 빌려 저희가 다른 모든 이들을 대신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국제사회에서 한국 소방관들의 헌신적인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찬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의 조그만 정성이 여러분의 빠른 회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 인류는 모두가 형제자매들이며, 서로를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의 작은 선물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희생하는 여러분의 고귀한 봉사에 대한 범 인류애적인 감사와 위로의 표현일 따름입니다.

저희의 도움은 무조건적인 것이므로 어떠한 부담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필요한 점이나 부족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3년 7월 26일

사단법인 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 홍콩 소식

### 스승님의 축복으로 일어난 양로원의 기적

현대의 경쟁 사회에서 노인들은 종종 소외되곤 한다. 홍콩 센터 동수들은 어르신들에게 스승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2003년 8월 말 지아니엔 양로원을 방문해 사랑의 활동을 펼쳤다.

이 작은 양로원은 평소 사회의 관심을 받는 일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동수들은 자연스레 이번 사랑의 활동을 위한 대상으로 이곳을 선택했다. 방문 당일 동수들은 채식 과자를 준비하는 한편 여러 가지 즐거운 공연을 선보였다. 또 함께 대화를 나누고 건강에 좋은 운동을 하기도 했다. 스승님의 사



양로원을 방문한 홍콩 동수들.

랑과 축복 속에 양로원에는 사랑과 즐거움이 가득 찼다. 침술에 능한 한 사제가 할머니의 몸에 침을 놓아 주자 기적이 일어나 평소 지팡이를 짚고 다녀야 했던 이 할머니는 주변 사람들의 격려와 박수 속에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게 되었다!

또 이 할머니는 여생 동안 채식을 하겠다고 얘기하기도 했다! 그 자리에 함께한 동수들은 모두 깊은 감명을 받고 앞으로 할머니가 영양이 풍부한 채식을 할 수 있도록 채식 식품을 무료로 보내 주기로 했다.

이번 방문은 지아니엔 양로원 노인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만들고 참가한 동수들에게도 내면의 사랑을 발휘할 수 있었던 뜻 깊은 행사였다. 양로원의 어르신들 모두 평화롭고 행복하게 사시고 생활 속에서 영원한 기쁨을 발견하시길 기원한다!

## 포모사 소식



**감사장**—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는 외과용 마스크 기증으로 의료진의 SARS 방역 활동을 돕고 유행성 전염병의 확산을 막는 데 뚜렷한 공헌을 했기에 이 감사장을 드립니다.

—중화민국 행정원 위생서 서장 천지엔런  
2003년 7월 30일



**임명장**-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를 본 검찰서의 2003년 기소처분 재교육 집행 기관으로 임명함.

-포모사 화롄 지방법원 검찰서

\*주: 포모사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는 1994년부터 매월 교도소 재소자들과 가출옥한 보호 관찰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방문한 공로로 지역 사법 기관들의 인정을 받았으며 법무부와 사법원 및 고등법원 등 사법기관으로부터 많은 표창을 받았다.



내리쬐는 땀악별 속에서 환경 보호 활동의 일환으로 해변을 청소하고 있는 동수들.



타이난 교도소와 밍더 개방 교도소에서 열린 영성 강연회.



표 1: 2003년 5월부터 8월까지 포모사 내 각종 자선 활동 지출 내역

(단위: NT\$)

장소	날짜	활 동 내 용	금액	부록
평후	2003. 5. 23.	SARS 방역 지원 활동의 일환으로 평후 병원, 국군 평후 병원, 평후 현 소방국에 3M N95 마스크 48,000개 기증(뉴스잡지 144호 참고)	240,120	A
타이베이	2003. 6. 9.	SARS 방역 활동을 위한 정부의 방역 의료용품이 부족하자 미국에서 5월 24일과 6월 9일 두 차례에 걸쳐 3M N95 마스크 63,000개를 공수, 포모사 행정원 위생서를 통해 일선 의료진들에게 공급(뉴스잡지 144호 참고)	1,272,086	B
타이난	2003. 7. 23.	밍더 개방 교도소 방문, 영성 강연회 개최 및 명상법 지도(동수 지원)	0	
타이난	2003. 7. 26.	타이난 시 환경 보호국의 환경 보호 캠페인에 동참, 타이난 골든 코스트 청소 작업(동수 지원)	0	
타이난	2003. 7. 31.	타이난 교도소 방문, 재소자들을 위한 영성 세미나 개최 및 명상법 지도(동수 지원)	0	
미아오리	2003. 8. 3.	시후 항공소의 환경 보호 활동에 협력, 미아오리 28번 국도 청소(동수 지원)	3,200	C
장화	2003. 8. 21.	지역 주민들을 위해 장화 시립 도서관과 장화 현정부에 영성 서적 기증	3,910	D
타이난	2003. 8. 28.	타이난 교도소 방문, 재소자들을 위한 영성 세미나 개최 및 명상법 지도(동수 지원)	0	
총계			NT\$1,519,3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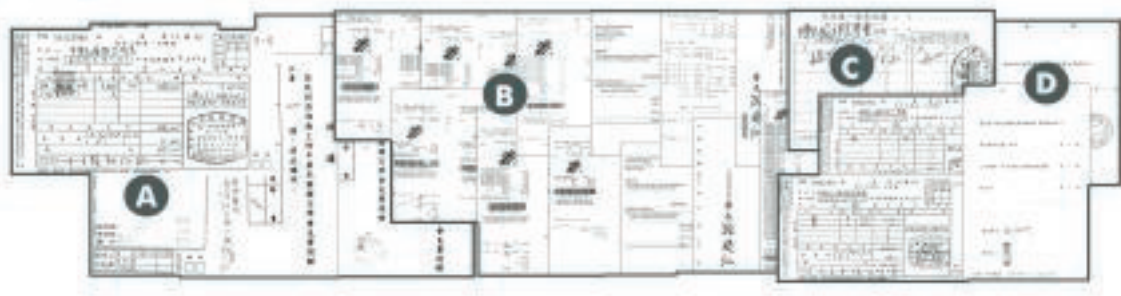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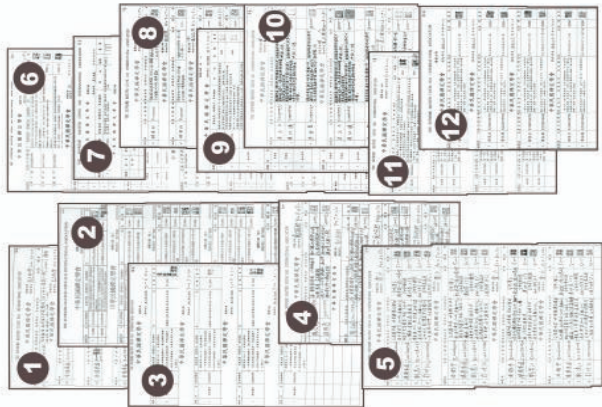


표 2: 2003년 5월부터 8월까지 포모사 극빈 가정 돕기 지출 내역

(단위: NT\$)

장소	2003년 5월		2003년 6월		2003년 7월		2003년 8월		부록
	가구 수	금액	가구 수	금액	가구 수	금액	가구 수	금액	
지룽	1	2,000	1	2,000	1	2,000	1	2,000	1
타이베이	6	16,000	6	16,000	5	13,000	5	13,000	2
타오위안	1	2,000	1	2,000	1	2,000	1	2,000	3
신주	2	6,000	2	6,000	2	6,000	2	6,000	4
타이중	4	14,000	4	14,000	4	14,000	3	11,000	5
난토후	7	26,000	7	26,000	7	26,000	7	26,000	6
지아이	1	3,000	1	3,000	-	-	-	-	7
타이난	1	4,000	1	4,000	1	4,000	1	4,000	8
가오슝	3	10,000	3	10,000	3	10,000	3	10,000	9
핑둥	3	10,000	3	10,000	3	9,000	3	9,000	10
타이둥	2	8,000	2	8,000	2	8,000	2	8,000	11
핑후	2	5,000	2	5,000	2	5,000	1	3,000	12
월 소계	33	\$106,000	33	\$106,000	31	\$99,000	29	\$94,000	
총계	NT\$405,000								

표 1, 2에서 보이듯이 2003년 5월부터 8월까지 포모사 내 각종 자선 활동 지출액은 총 NT\$1,924,316(미화 약 55,777.28달러)에 달한다.





# Quan Yin Web Sites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eng/links/links.htm> (영어)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 (포모사-중국어 번체/간체 지원, 영어)  
<http://www.smchbooks.com/> (포모사-중국어 번체/간체 지원, SM 경서조)  
<http://www.godsmediatecontact.com/> (싱가포르-영어)  
<http://www.godsdirectcontact.or.kr/> (한국-한국어)  
<http://www.godsmediatecontact.org/> (일본-일본어)  
<http://www.godsdirectcontact.or.id/> (인도네시아-인도네시아어)  
<http://www.godsdirectcontact-thai.com/> (태국-태국어)  
<http://www.godsdirectcontact.net> (미국-중국어 번체/간체 지원, 영어)  
<http://www.godsdirectcontact.com/> (미국-스페인어, 불어, 영어, 중국어 번체/간체 지원)  
<http://www.contactodirectocondios.org/> (미국-스페인어)  
<http://www.CauThongVoiThuongDe.com> (미국-어울락어)  
<http://www.godsmediatecontact.net/aulac> (미국-어울락어)  
<http://www.Godsmediatecontact.org/video/> (미국 Windows Media Video & Real Video-다국어 지원)  
<http://www.contactdirectavecdieu.org/> (프랑스-프랑스어)  
<http://godsdirectcontact.rma.cz/> (체코 공화국-체코어)  
<http://www.godsdirectcontact.org/> (캐나다 Real Audio 지원-영어, 어울락어)  
<http://www.godsdirectcontact.org/radio/aulac/> (캐나다 Real Audio & MP3-어울락어 유니코드)  
<http://www.godsdirectcontact.de/> (독일-독일어)  
<http://www.direkter-kontakt-mit-gott.org/> (오스트리아-독일어)  
<http://quanyin.narod.ru/> (러시아-러시아어)  
<http://www.contatodiretocomdeus.com.br> (브라질-포르투갈어)  
<http://www.Godsdirectcontact.com/IhavecometotakeyouHome>  
 『나는 여러분을 고향으로 데려가기 위해 왔습니다』 책 주문-영어)

E-메일로 잡지를 받아 보시려면 다음 사이트를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ch/service/service.htm> (중국어)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eng/service/service.htm> (영어)  
<http://www.Godsdirectcontact.org/au/service/service.htm> (어울락어)  
<http://www.Godsdirectcontact.com/english/service.htm> (영어)  
<http://www.Godsdirectcontact.com/spanish/service.htm> (스페인어)  
<http://www.Godsdirectcontact.com/chinese/fan/service.htm> (중국어 번체)  
<http://www.Godsdirectcontact.com/chinese/jian/service.htm> (중국어 간체)

『즉각 깨닫는 열쇠』 견본책 무료 다운로드 사이트 (50개 국어)

[http://www.godsdirectcontact.or.kr/board\\_m/bbs.php3?table=SMCH2\\_22&query=list&p=1](http://www.godsdirectcontact.or.kr/board_m/bbs.php3?table=SMCH2_22&query=list&p=1)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eng/publication/sample/sample.htm>  
<http://www.direkter-kontakt-mit-gott.org/download/index.htm>  
<http://www.godsdirectcontact.org/sample>





\*\*\*아프리카\*\*\*

★ 앙골라	센터	244-92-338082	오타와	Mr. & Mrs. Nai-Chi Hsu	phathung20@yahoo.ca 1-450-647-4871
		luandacentre@yahoo.com		Mr. Tuan Duong	1-613-565-0862 et323@ncf.ca
★ 베닌	센터	229-383-982	토론토	센터	1-416-503-0515
		smbenin@yahoo.fr		Ms. Diep Hoa	1-905-828-2279 hoadiep0723@yahoo.com
★ 카메룬				Mr. & Mrs. Lenh Van Pham	1-416-282-5297
두알라	센터	237-34-37232			hiepham@rogers.com
		smcameroon@hotmail.com		연락인 사무실	torontocontact@yahoo.ca
★ 가나	센터	233-27-607-528	밴쿠버	Ms. Li-Hwa Liao	1-604-580-4087
		smghanac@yahoo.com			jsung99@shaw.ca
★ 케냐	센터	254-72-603953		Ms. Sheila Coodin	1-604-580-4087
		atmoske@yahoo.com			qycontactperson@yahoo.ca
★ 모리셔스				Ms. Nguyen Thi Yen	1-604-581-7230
포트루이스	Mr. Liang Dong Sheng	230-208-1758			yentnguyen2002@yahoo.com
		smchmauritius@intnet.mu	★ 칠레		
	Ms. Josiane Chan She Ping	230-242-0462	라세레나	Mr. Esteban Zapata Guzman	56-51-451019
		smchmauritius@intnet.mu			laserenacenter@hotmail.com
★ 남아프리카공화국			산티아고	센터	56-2-6385901
케이프타운	센터	27-83-952-5744			chilecenter@hotmail.com
		capetowncentre@yahoo.com		연락인 사무실	56-2-6389229
더반	센터	27-31-368-7759	★ 콜롬비아		
		durbancentre@yahoo.com	보고타	Mrs. Blanca Elizabeth Pedraza	57-1-6240217
요하네스버그	Mr. Gerhard Vosloo	27-11-880-0349	★ 코스타리카		
		ghvosloo@mweb.co.za	산호세	센터	506-2200-753
	Ms. Dieketseng Napo	27-83-456-3968		Ms. Laura Chen	506-3632-748
		dnapo@webmail.co.za			lauracmesa401@hotmail.com
★ 토고			★ 온두라스		
팔리메	센터	228-4-410-948	테구시갈파	Ms. Edith Sagrario Ochoa	504-2250120
로메	센터	228-2-222-864	★ 멕시코		
		smtogo@yahoo.com	멕시코칼리	Ms. Sylvia Lagrange	52-686-568-4575
	Mr. David Chine	228-2-215-551		eternalmaster2002@yahoo.com.mx	52-55-5752-7472/ 5639-3506
★ 우간다			멕시코 D.F.	센터	kamel@igo.com.mx
캄팔라	Mr. Samuel Luyimbaazi	256-7764-9807			52-55-5852-1256

\*\*\*아메리카\*\*\*

★ 아르헨티나			★ 니카라과		
부에노스아이레스	Ms. Mabel Alicia Kaplan	54-11-4-545-4640	마나과	Mrs. Pastora Valdivia Iglesias	505-248-3651
		backhome25@hotmail.com			roxanavet@hotmail.com
★ 볼리비아			★ 파나마	센터	507-236-7495
산타크루즈	Ms. Adalina da Graca Munhoz	591-337-2039		Ms. Maritza E. R. de Leone	507-260-5021
		adamunhoz@hotmail.com			mrleone@hotmail.com
트리니다드	Mr. Wu Chao Shien	591-4625964	★ 파라과이		
★ 브라질			아순시온	Ms. Emilce Cespedes Gimenez	595-2-523684
벨렘	Mr. Wei Cheng Wu	55-91-2234424			ec_py2002@yahoo.com.ar
		55-91-2746611	★ 페루		
		belemcenter@yahoo.com.br	쿠스코	Ms. Patricia Kross Canal	51-84-232682
레시페	Ms. Salma Casierra Alvarez	55-81-3262912			cuscoentro@yahoo.com
상파울루	센터	55-11-5904-3083/ 5579-1180	리마	센터	51-1-4716472
		br_center@yahoo.com.br		Mr. Edgar Nadal & Ms. Teresa de Nadal	51-1-4667737
★ 캐나다					edyter@viabcp.com
에드먼턴	Mr. Brian Hokanson	1-780-444-6568		Mr. Victor Carrera	51-1-2650310
	Mr. & Mrs. Dang Van Sang	1-780-963-5240	푸노	Ms. Mercedes Rodriguez	51-54-353039
		dangvansang@hotmail.com			punocentroperu@yahoo.es
킹스턴	Mr. Quang Thanh Le	1-613-384-3295	트루히요	Mr. Luis Rebaza	51-44-260871
런던	센터	1-519-438-3702			larv@terra.com.pe
		uniself@yahoo.com	★ 살바도르		
몬트리올	센터	1-514-277-4655	산살바도르	Mr. Manuel Menjivar	503-216-9413
		smchmontreal@look.ca			quijano_manuel@yahoo.es
	Ms. Euchariste Pierre	1-514-277-2717	★ 트리니다드 섬		
		p_euchariste1@sympatico.ca		Mr. Ray Alibocus	1-868-637-1054
	Mr. Hung The Nguyen	1-514-494-7511			alibocus@tstt.net.tt



★ 미국					
애리조나 :	센터	1-602-264-3480	미시간 :	Mr. & Mrs. Huan-Chung Li	1-978-957-7021
	Mr. & Mrs. Kenny Ngo	1-602-404-5341		Mr. Martin John White	1-734-327-9114
		kennynngoaz@hotmail.com			mading02000@yahoo.com
아칸사스 :	Mr. Robert Jeffreys	1-501-253-8287	미네소타 :	Ms. Quach Ngoc	1-612-722-7328
		bobedj@cox-internet.com			quach001@msn.com
캘리포니아 :			미주리 :		
*로스앤젤레스	센터	1-909-674-7814	*제퍼슨	Ms. Mary E. Steck	1-573-761-9969
	Mr. & Mrs. Tsung-Liang Lin	1-626-914-4127			MSteck5208@aol.com
		tllin54@hotmail.com	*롤라	Mr. & Mrs. Genda Chen	1-573-368-2679
	Mr. & Mrs. Dong Phung	1-626-284-9994			gchen@umr.edu
		SanGabriel99@hotmail.com	네브라스카 :	Ms. Celine Robertson	1-402-483-4067
	Mr. Gerald Martin	1-310-836-2740			croberts@lps.org
		gmartin0999@hotmail.com	네바다 :		
	Mr. & Mrs. Hieu De Tu	1-916-682-9540	*라스베이거스	Ms. Helen Wong	1-702-242-5688
		saccenter.ca@usa.com		센터	1-973-209-1651
*샌디에이고	센터	1-619-280-7982		Mr. Chang Sheng Chou	c_newjersey@yahoo.com
		quanyinsd@juno.com			1-973-335-5336
*샌프란시스코	Mr. & Mrs. Tran Van Luu	1-619-475-9891		JohnChou@ymlusa.com	1-505-342-2252
	센터	KHOALUONG@aol.com	뉴욕 :	Mr. & Mrs. Nawarskas	1-505-342-2252
	Mr. & Mrs. Khoa Dang Luong	1-415-753-2922			anawarskas@hotmail.com
	Mr. & Mrs. Dan Hoang	1-415-333-9119	*로체스터	Ms. Debra Couch	1-718-567-0064
		sfcenter@hotmail.com			dong@phys.columbia.edu
		1-716-256-3961	노스캐롤라이나 :		
*산호세	Ms. Sophie Lapaire	1-650-988-6500	*오하이오 :	Mr. & Mrs. Huynh Thien Tan	1-704-535-3789
		Sophie.Lapaire@eng.sun.com		Mr. & Mrs. Vu Van Phuong	1-513-887-8597
	Mr. & Mrs. Edgar Shyuan	1-408-463-0297			ohiocenter@yahoo.com
		Edgar-Teresa@worldnet.att.net		Mr. Gilbert Rivera	1-937-746-3786
	Mr. Loc Petrus	1-510-276-4631			wisdmeeye@aol.com
		petrusl2k@earthlink.net	오클라호마 :	Mr. & Mrs. Tran Kim Lam	1-405-632-1598
	Mr. Jim Su	1-408-253-8516			LTRAN2292@aol.com
		SumaJim@aol.com	오리건 :		
콜로라도 :	Mr. James Kiet Le	1-408-262-8233	*포틀랜드	Ms. Vera Looijenga	1-503-234-1416
		thanhgiang1990@yahoo.com		Mr. & Mrs. Minh Tran	1-503-614-0147
	Ms. Victoria Singson	1-303-986-1248			oregon_center90@yahoo.com
플로리다 :		torahi@ureach.com		Ms. Youping Zhong	1-503-257-2437
	Mr. & Mrs. Thai Dinh Nguyen	1-941-458-2639			youping320@yahoo.com
*케이프코랄		Thaidbzad@msn.com	펜실베이니아 :	Mr. & Mrs. Diep Tam Nguyen	1-610-352-7787
	Ms. Trina L. Stokes	1-239-433-9369			DiepAshleyPa@aol.com
		tls1095@earthlink.net	텍사스 :	Mrs. Ella Flowers	1-215-879-6852
*올랜도	Mr. Michael Stephen Blake	1-407-333-0178		센터	1-512-396-3471
		ekalbekim@yahoo.com	*오스틴		jjdawu@yahoo.com
조지아 :	센터/ Bhiksuni Chan Mo	1-770-936-9926		Mr. Dean Duong Tran	1-512-989-6113
		georgiacenter@hotmail.com			tranduongdean@yahoo.com
	Mr. James Collins	1-770-934-2098	*달라스	센터	1-214-339-9004
하와이 :	Ms. Kim Dung Thi Nguyen	1-404-292-7952			DallasCenter@yahoo.com
	센터	1-808-735-9180		Mr. Tim Mecha	1-972-395-0225
		hawaiictr@hotmail.com			t.mecha@attbi.com
	Mrs. Dorothy Kaomi Sakata	1-808-988-6059		Mr. Weidong Duan	1-972-517-5807
		DorothySakata@aol.com			water96@yahoo.com
일리노이 :	Mr. tran, Cao-Minh Lam	1-773-506-8853	Mr. Jimmy Nguyen		1-972-206-2042
		caominhtran@yahoo.com			DallasCenter@hotmail.com
인디애나 :	Mr. & Mrs. Duc Vu	1-317-293-5303		센터	1-281-893-8300
		Duchanh@aol.com	*휴스턴		CHINGHAI_TX@sbcglobal.net
캔터키 :	센터	kycenter2000@yahoo.com		Ms. Carolyn Adamson	1-713-6652659
	Mr. & Mrs. Nguyen Minh Hung	1-502-695-7257			cadamson@houston.rr.com
루이지애나 :		FNGUYEN@MAIL.STATE.KY.US	Mr. & Mrs. Charles Le Nguyen		1-281-251-8812
	Mr. John L. Fontenot	1-504-483-3234			cuc_le@sbcglobal.net
		jlfontenot@hotmail.com		Mr. & Mrs. Robert Yuan	1-281-251-3199
메릴랜드 :	Mr. Nguyen Van Hieu	1-301-933-5490	*샌안토니오		robert.yuan@hp.com
		MARYLANDCENTER@yahoo.com		Mr. Khoi Kim Le	1-210-558-6088
메사추세츠 :					lethong@hotmail.com
	*보스턴	1-978-436-9982	버지니아 :	센터	1-703-941-0067
		shinemound@earthlink.net		Mr. & Mrs. Hua Phi Anh	1-703-978-6791
	Ms. Gan Mai-Ky	1-508-791-7316			



*버지니아비치	Mr. David Young	anhhlly@hotmail.com 1-757-588-8468 davidkyoung@hotmail.com	도쿄	Ms. Yukiko Sugihara	81-3-3307-1643 cal13840@pop07.odn.ne.jp 81-90-3963-0755 y-plus@f6.dion.ne.jp
워싱턴 : *시애틀	Mr. Ben Tran	1-425-643-3649 benptran@aol.com	★ 한국	출판사	031-772-9250 chinghai@unitel.co.kr
	Mr. Edward Tan	1-206-228-8988 edtan@usa.com	영동	영동 센터	054-532-5821 houmril@kornet.net
*와이오밍	Ms. Esther Mary Cole	1-307-332-7108 sumaemc@yahoo.com	서울	서울 센터	02-577-2158 quanyim@unitel.co.kr
★ 푸에르토리코				유태인	02-795-3927
카뮈	Mrs. Disnalda Hernanadez Morale	1-787-262-1874 disnalda@caribe.net	이지자	이지자	02-599-1701
			부산	부산 센터	051-581-9200 chinghaibusan@hanmail.net
***아시아***				송호준	051-957-4552
★ 포모사			전주	황상원	051-805-7283
타이베이	센터	886-2-2706-6168 tpe.light@msn.hinet.net		전주 센터	063-274-7553 shc5824@hanmail.net
	Mr. & Mrs. Loh, Shih-Hurng	886-2-2706-2628 shloh@ndmctsgh.edu.tw	인천	신현창	063-254-5824
미아오리	Mr. & Mrs. Chen, Tsan Gin	886-37-221618		인천 센터	032-579-5351
	Mr. Chu, Chen Pei	886-37-724726	대구	이재문	032-244-1250
가오슝	Mr. & Mrs. Zeng, Huan Zhong	886-7-7534693		대구 센터	053-743-4450 chinghaidaegu@hanmail.net
★ 홍콩	센터	852-27495534		김익현	053-633-3346
	연락인 사무실	852-26378257 joyandlove3@hotmail.com	대전	한선희	053-767-5338
★ 인도				차재현	053-856-3849
뭄바이	Mr. Suneel Ramaney	91-22-282-0190 trust_god@rediffmail.com	광주	대전 센터	042-625-4801
		91-33-655-6741		김수동	042-254-7309
캘커타	Mr. Ashok Sinha	shive@cal.vsnl.net.in	안동	광주 센터	062-525-7607
★ 인도네시아				조명대	061-394-6552 smgwangju@naver.com
발리	센터	62-361-231-040 smch_bali@yahoo.com	제주	안동 센터	054-821-3043
	Mr. Agus Wibawa	62-81-855-8001 wibawa001@yahoo.com	★ 마카오	김삼태	054-821-3043
		62-21-6319066		제주 센터	064-99-6113
자카르타	센터	62-21-6319066 smch-jkt@dnet.net.id		센터	853-532231 macau_center@email.com
	Mr. Tai Eng Chew	62-21-6319061	★ 말레이시아	연락인 사무실	853-532995
	Ms. Lie Ik Chin	62-21-6510218	알로르세타르	Mr. Chiao-Shui Yu	60-4-7877453
		62-21-6510218	조호르바루	Mr. & Mrs. Chi-Liang Chen	607-6622518 supreme2@tm.net.my
	Ms. Murniati Kamarga	62-21-3840845 hai@cbn.net.id	칼라룸푸르	센터	603-9287-3904 klsmch@tm.net.my
	Mr. I Ketut P. Swastika	62-21-7364470		연락인 사무실	6012-259-5290 klgcp@hotmail.com
마젤랑	Mr. Njo Kwat Gone	62-293-367-031 irn_up@yahoo.com	페낭	센터	6-018-2413832 pgsmch@pd.jaring.my
말랑	Mr. Judy R. Wartono	62-341-491-188 yudi_wartono@telkom.net		Mr. & Mrs. Lin Wah Soon	60-4-6420370
		62-341-325-832	★ 몽골		
메단	Mr. Henry Soekianto	62-61-4514656	울란바토르	Ms. Erdenechimeg Baasandamba	976-11-350422 baasandamba@yahoo.com
	Mrs. Merlinda Sjaifuddin	62-31-5612880 smch_medan@hotmail.com	바가누르	Mr. & Mrs. Gursad Bayarsaikhan	976-121-21174
수라바야	센터	62-31-5612880 ahimsasb@indosat.net.id	★ 미얀마	Mr. Sai San Aik	951-667427
		62-31-594-5868	★ 네팔		
	Mr. Harry	harry_l@sby.dnet.net.id	카트만두	센터	977-1-254-481 chinghai_kathmandu@hotmail.com
욕야카르타	Mr. Augustinus	62-274-588-105 t.adianingtyas@eudoramail.com			977-1-473558
★ 이스라엘	Mr. Yaron Adari	972-9-866-6247 ya05@netvision.net.il	포카라	Mr. Ajay Shrestha	ajaystha@hotmail.com
★ 일본				센터	977-61-28455
군마	Ms. Hiroko Ichiba	81-27-9961022 divinalv@nth.biglobe.ne.jp		Mr. Bishnu Neupane	977-61-31643 neupanebishnu@hotmail.com
다테야마	센터	81-470-209127 tateyama_lg@yahoo.co.jp			977-61-28255
			★ 필리핀	Mr. Shiva Bastola	977-61-31413
				Mr. Raj Kumar Lama	632-842-8828
				마닐라 센터	



## 전세계 연락처

청하이 무상사 뉴스잡지 146호

★ 싱가포르	센터	manilach@hotmail.com 65-6741-7001	함부르크	연락인 사무실	dusseldorfcenter@hotmail.com 49-581-15491
	연락인 사무실	chinghai@singnet.com.sg 65-6846-9237	뮌헨	Ms. Johanna Hoening	HamburgCenter@gmx.de 49-8170-997050
★ 스리랑카	콜롬보	Mr. Lawrance Fernando 94-1-412115 lawrance@thefinance.lk		Ms. Kang Cheng	ChingHai@aol.com 49-89-3616347
★ 태국	방콕	센터 662-674-2690 bkk_c@hotmail.com	★ 그리스	아테네	Mr. Eric Raza 30-01-6923-133 Razahidah@hotmail.com
		Ms. Laddawan Na Ranong 66-1-8690636 66-2-5914571 edaslnd@samsorn.stou.ac.th	★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Mr. Marcel Mannaart 31-72-5070236 m.mannaart@planet.nl
치앙마이		Mr. Wu Peir Yuan 66-1-8248294		Mr. Nguyen Ngoc Trung	31-294-41-9783 vo-khong@wanadoo.nl
콘캔	센터	Ms. Siriwan Supatrchamnian 66-53-384128 66-43-378112	★ 헝가리	부다페스트	센터 361-363-3896 budapestcenter@freemail.hu
송크라	센터	66-74-447224		Mr. Lux Tamas	36-304273364
*** 유럽 ***				Ms. Dora Seres	36-1379-1924
★ 오스트리아	비엔나	센터 Chinghai@A1.net 43-2955-70535	기요르	Mr. Lehel Csaba	36-96-456-452 clehel@freemail.hu
		Mr. & Mrs. Nguyen Van Dinh 43-664-3909200 sound@gmx.at	★ 아일랜드	더블린	Mr. & Mrs. Bernard Leech 353-1-6249050 bernardleech2003@yahoo.co.uk
★ 벨기에	브뤼셀	Ms. Ann Goorts 31-6-11-240-115 gotske@yahoo.fr	★ 노르웨이	오슬로	Mr. Nguyen Ngoc Tai 47-22-612939 norwayqy@online.no
★ 불가리아	소피아	Mr. Ruslan Staykov 359-2-575358 oldruslan@yahoo.com	★ 폴란드	슈체친	Mrs. Grazyna Plocinizak 48-91-4874953
		Mrs. Miglena Bozhikova 359-32-940726 chinghaiplovdiv@mail.bg		바르샤바	Mrs. To Soszynska 48-22-6593897 quanyin_pl@yahoo.com
★ 크로아티아	Mr. Zeljko Starcevic	385-51-251081 zeljko@mindless.com	로드츠	Ms. Lukaszewska Mariola	48-42-6860037 czakra@interia.pl
★ 체코	프라하	센터 42-02-6126-3031 prague-center@chinghai.cz	★ 포르투갈	리스본	Mr. Joao Daniel Rosa Simoes 351-21-082-5306 lisbon_center@yahoo.com
		Mrs. Marcela Gerlova 42-0-608-265-305 Chinghai@chinghai.cz	레이리아	Mr. Antonio Jose Vieira Caldeira	351-2625-97924 alcoa_center@hotmail.com
★ 덴마크	Mr. Thanh Nguyen	45-66-190459 my@webspeed.dk	★ 러시아	모스크바	Mrs. Leera Gareyeva 7-095-732-08-32 boulgakov@tri-el.ru
★ 핀란드	헬싱키	Ms. Luong Hoang Hanh 358-9-8537455 hoanghanh@jippii.fi	★ 슬로베니아	Mr. Rastislav Alfonz Kovacic	386-35-814981 dbk@siol.net
		Ms. Anne Nystrom 358-9-793902 anne.nystrom@kolumbus.fi	★ 스페인	마드리드	Mr. Gabriel Gasca Hernandez 34-91-5930413 Madridcenter@yahoo.es
★ 프랑스	알사스	Ms. Despretz Anne-Claire 33-3-8977-0607 arclai@infonie.fr	말라가	Ms. Lidia Kong	34-91-5470366
아르데슈		Ms. Reynet Jeanine 33-4-75376232	발렌시아	Mr. Wang Ya-King	34-95-2351521
몽펠리에	Mr. Nguyen Tich Hung	33-4-67413257 tich.hung@infonie.fr		Vegetarian House	34-96-3744361
파리	센터	33-1-4300-6282	★ 스웨덴	Mr. Yu Xi-Qi	34-96-3347061 valenciachinghai@yahoo.es
	Ms. Lancelot Isabelle	33-1-4030-1174 ilancelot@celestialfamily.net	엔겔홀름	Mrs. Luu Thi Dung	46-431-26151 moonasilver@yahoo.com
	Ms. Ngo Thi Huong	33-1-4376-1453	오레	Ms. Viveka Widlund	46-647-32097 are.sweden@post.utfors.se
★ 독일	베를린	센터 49-30-3470-9262 pureocean@web.de	말뫼	Mr. & Mrs. John Wu	46-40-215688 john.wu@bolina.hsb.se
		Mr. Christian Bastwoeste 49-30-3470-9262	스톡홀름	Mr. Mats Gigard	46-8-882207 mats.gigard@telia.com
뒤셀도르프	연락인 사무실	49-201-5809-816 49-174-5265242 ngoc-thao.nguyen@gmx.de	★ 스위스	제네바	Ms. Feng-Li Liu 41-22-7973789 fengli@ilo.org
				Ms. Klein Ursula	41-22-3691550



전세계 연락처

청하이 무상사 뉴스잡지 146호

★ 영국				smcanbra@cyberone.com.au			
입스위치	Mr. Shahid Mahmood	44-1473-436961	멜버른	센터	melbsmch@aol.com		
		shahidm@ntlworld.com		Mr. & Mrs. Rob Nagtegaal	61-3-5282-4431		
런던	Mr. Nicholas Gardiner	44-2089-773647			rosrobbery@aol.com		
	Mrs. C. Y. Man	44-1895-254521		Mr. Phong Minh Tan Do	61-3-9850-2553		
		pnl@matters19.freemove.co.uk			phongloveme@yahoo.com		
스토크온트렌트	Mrs. Janet Weller	44-1782-412728		Mr. Alan Khor	61-3-9857-4239		
		l.wellers@ntlworld.com			ckhor@bigpond.net.au		
서리	Mr. C. W. Wo	44-1293-416698	퍼스	센터	61-8-9242-1189		
		stmchwo@hotmail.com		Mr. David Robert Brooks	61-8-9418-6125		
★ 스코틀랜드					daveb@inet.net.au		
에든버러	Mrs. Annette Lillig	44-131-6660319	시드니	Mr. Ly Van Tri	61-8-9244-7661		
		lillig2002@yahoo.co.uk		Mr. Eino Laidsaar	61-2-9477-5459		
				einoforquanyinsydney@yahoo.com			
*** 오세아니아 ***				Mr. Hong Bo	61-2-48445170		
					hongbo_huang@hotmail.com		
★ 호주				Mr. Ly An Thanh	61-2-9823-8223		
애들레이드	Mr. Leon Liensavanh	618-8332-6192	★ 뉴질랜드	anbinh_sydney@yahoo.com.au			
		leonadelaide@hotmail.com	오클랜드	Mrs. Noelyne No Thi Ishibasi	649-277-9285		
브리즈번	센터	briscentre@telstra.com			takahide@xtra.co.nz		
	Mr. Gerry Bisshop	617-3847-1646		Mrs. Anne Lester	649-625-1809		
	Mrs. Tieng Thi Minh Chau	617-3715-7230			annenz@eudoramail.com		
		ctieng@telstra.com	크라이스트처치	Mr. Michael Lin	643-343-6918		
	Mr. & Mrs. Yun-Lung Chen	617-3344-2519			nzchchsmch@hotmail.com		
바이런베이/노던리버스	Mr. & Mrs. Ray Dixon	612-6689-1282	해밀턴	Mr. Glen Vincent Prime	hamnzcont@yahoo.co.nz		
		rayandjulie@linknet.com.au	넬슨	Ms. Sharlene Lee	64-3-5391313		
캔버라	Mr. & Mrs. Khanh Huu Hoang	61-2-6259-1993			shale@ihug.co.nz		

‘예술과 영성’ TV 프로그램 비디오테이프

이메일: art&spirituality@Godsdirectcontact.org

팩스: 1-413-751-0848 (미국)

SM 경서조

이메일: divine@Godsdirectcontact.org

팩스: 1-240-352-5613/ 886-943-802829

(스승님의 책을 각국 언어로 번역하실 분은 연락 바랍니다.)

수행 상담소

이메일: lovewish@Godsdirectcontact.org

팩스: 886-946-730699

LA센터 경서팀

이메일: la\_bookstore@yahoo.com

팩스: 1-909-738-9992

SM 보석 주식회사

이메일: smcj@ms34.hinet.net

전화: 886-2-87910860

팩스: 886-2-87911216

뉴스그룹

이메일: lovenews@Godsdirectcontact.org

팩스: 1-801-7409196/ 886-946-728475

포모사 타이베이 창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출판사

이메일: smchbooks@Godsdirectcontact.org

전화: (886) 2-87873935

팩스: (886) 2-87870873

대한민국 창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출판사

이메일: chinghai@unitel.co.kr

전화: 031-772-9250

팩스: 031-772-9258

(영어나 중국어를 한국어로 번역하실 수 있는 분은 연락 바랍니다.)

대한민국 창하이 무상사 무상예술 연락처

이메일: hounri1@kornet.net

전화: 054-532-5821

팩스: 054-532-5822

(천의, SM 보석, 해피요기, 만세등, 그림... 등의 주문을 원하시는 분은

영동 센터로 문의해 주십시오.)



시

청하이 무상사 뉴스잡지 146호

## 기쁨 선언

리아오니 사저/ 포모사 (원문 중국어)

순중하고 순중하고 또 순중합니다!

마침내 마음속으로 험터히 순중합니다.

당신 앞에 엎드려

당신의 어떤 뜻이든 기꺼이 받들겠습니다.

당신께서 우리에게 고양의 영광을 하사하는 순간,

놀이공원의 모든 불이 켜졌습니다!

모든 것이 재미있고 편안해졌습니다.

그러니 누가 도망가려 할까요?

스승님의 농담



## 의사의 현명한 투자

청하이 무상사/ 2001. 6. 11. 미국 플로리다 (원문 영어)  
비디오테이프 No. 717

한 화가가 개인전을 가졌습니다. 그가 화랑 주인에게 자기 그림에 관심있는 사람이 있는지 묻자 화랑 주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에게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좋은 소식을 먼저 말하자면, 어떤 남자 분이 당신 그림에 흥미를 갖고는 내게 당신 그림이 다른 예술가들의 경우처럼 사후에 가치가 올라갈 건지 묻더군요. 그래서 난 당연하다며 당신의 잠재 능력을 생각했을 때 당신이 죽고 나면 그림 값어치가 천정부지로 올라갈 거라고 말해 줬답니다. 그러자 한꺼번에 그림을 15점이나 사 가더군요. 이게 좋은 소식이지요.” 그러자 화가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나쁜 소식은요?” “그 그림을 사 간 사람이 당신 주치의라는 거죠!”



## 우편 배달부에게도 영능력이 필요해

청하이 무상사/ 2001. 6. 11. 미국 플로리다 (원문 영어)  
비디오테이프 No. 717

어떤 바보 같은 사람이 편지를 한 통 쓰고는 봉투에 우표를 붙이고 겉면에 “사 이공에 있는 기술자, 나의 형에게”라고 썼습니다. 친구가 그것을 보고는 말했지요. “세상에! 주소를 이렇게 쓰면 어떻게 해! 우편 배달부가 어떻게 너희 형을 찾겠냐?” 그러자 바보는 대꾸했지요. “이 바보야! 나한테 기술자인 형은 한 사람밖에 없단 말 이야!”

## 안됐군요, 하느님!

청하이 무상사/ 2001. 6. 11. 미국 플로리다 (원문 영어)  
비디오테이프 No. 717

엄마가 아이에게 2달러를 주면서 “1달러는 네 용돈으로 쓰고 나머지 1달러는 하느님을 위해 교회 헌금함에 넣어야 한다.” 하고 말했습니다. 아이는 돈을 들고 밖에 나가 돌아다니며 놀다가 그만 1달러를 강에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돈을 찾지 못하자 아이는 말했죠. “하느님, 죄송해요! 하느님 돈이 빠졌어요!”



스승님의 위 농담을 동영상으로 보시려면 다음 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 주위 분들과 함께 유쾌한 스승님의 농담을 나누십시오.

<http://www.godsdirectcontact.org/eng/news/146/jk1.htm> (미국)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eng/news/146/jk1.htm> (포모사)

<http://www.godsdirectcontact.net/eng/news/146/jk1.htm> (미국)





영혼의 고양



### 『나는 여러분을 고향으로 데려가기 위해 왔습니다』 (루마니아어판)

우리 모두는 천국의 완전한 존재다. 그러나 무수한 환경적인 요인의 끊임없는 영향으로 인해 우리는 종종 자신의 진아를 명확히 보지 못하고 끝없는 고통의 바다에 빠지곤 한다. 내면의 진아를 찾고 우리 자신의 위대한 본성을 깨닫고 나서야 우리는 진정으로 해탈할 수 있다. 이 진귀하기 이를 데 없는 영성 서적 『나는 여러분을 고향으로 데려가기 위해 왔습니다』는 칭하이 무상사의 세계 각지 강연 내용을 발췌한 것이다. 지혜로 가득한 스승님의 말씀은 떠오르는 햇살처럼 고통의 바다에서 벗어나 길 갈망하는 사바세계 중생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을 밝혀 준다.



### 『무상주방』 제1권 깨판본 출간! (영어, 중국어)

세계 각지의 채식 요리를 선보인 멋진 이 요리책은 아름다운 글과 그림을 통해 전세계 동수들의 요리 비법을 알려 준다. 또한 이 책을 더욱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칭하이 무상사가 직접 전수하신, 동서양을 망라한 맛있는 요리법이 담겨 있다는 점이다. 요리에 자신이 없는 사람도 이 책의 상세한 설명에 맞춰 차근차근 따라하다 보면 어렵지 않게 색과 맛, 향이 완벽하게 갖춰진 수많은 채식 요리를 즐겁게 준비할 수 있다! 신이 주신 이 요리 비법을 친구, 친척들과도 함께 나누어 보자!



CD-CE04 &lt;중국어&gt;

### 깨달은 스승의 무형의 일

1986. 6. 30. 포모사 타이베이 완화 지구

깨달은 스승의 화신과 육신은 어떤 다양한 일을 수행해야 하는가? 스승님은 제자의 나쁜 업장을 어떻게 처리하시며 마(魔)를 어떻게 조복시켜 수행에 귀의하게 만드시는가? 스승님이 제자의 5대 조상들을 위해 검산지옥을 통과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는가? 스승님은 우리가 어떤 법문을 수행하고 어떤 경지에 도달했든 참된 자비심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강조하신다. 그 깨달은 무엇인가? 이 강연 CD는 스승님이 공개 강연을 시작하시기 전 초창기 시절 법문으로서, 최초로 출판된 귀한 오디오 출판물이다!

스승님의 출판물을 주문하려면 이곳으로 연락하세요.

The Supreme Master Ching Hai International Association Publishing Co., Ltd., Taipei, Formosa

Tel: (886) 2-87873935/ Fax: (886) 2-87870873

E-mail: smchbooks@Godsdirectcontact.org

대만 우체국 송금 계좌 번호: 19259438

수취인: The Supreme Master Ching Hai International Association Publishing Co., Ltd.

다음 사이트를 방문하시면 스승님의 최신 간행물의 목록과 간략한 내용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http://www.smchbooks.com/> (영어, 중국어)칭하이 무상사  
새로 나온  
비디오테이프

751 &lt;중국어, 영어 + 영어, 중국어 자막&gt;

### 불퇴보살

2003. 2. 23. 스승님과 시후 장주들의 전화 회의